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月)

伊軍將兵二千餘名 東阿로向發

【나폴리二十二日發聯合】伊太利汽船은 將校四十名 下士二百三十六名 兵二千을 搭載하고 二十一日夜나폴리를 出發하야 맛사와로 向發하엿다

에國軍大部分解隊 領土一部割讓要求

和協試案一蹴한代身提出햇다는 伊國首相의代案內容

【電通쥬네브二十二日發】伊太利政府는 二十一日 五國委員會의 和協試案을 一蹴하기로 態度를 決定하는同時에 何等의 代案을 提出할 意思가잇다는것을 表明하엿는데 二十二日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은 마다리아가 五國委員會議長에 對하야 뭇솔리니伊首相의 代案이라는것을 提出한 模樣이다 右는 뭇솔리니伊首相이 聯盟其他 列國政府에 비로소 그抱懷하고잇는 紛事解決의 條件을 提示하야 이것으로써 對에 武力抗爭을 中止하고 和協解決을 圖할意思가 잇다는것을 明白히한것이라고 觀測된다 右뭇솔리니首相의 代案提出로 陰鬱한 쥬네브의事態가如何한 展開를 示할는지 그推移는 바야흐로새로운 注目의的이되여잇다 그리고 右代案의內容으로 傳하는條件을 列擧하면 左와如하다

一、伊領에리트리아와 소마릴란드를 領土的으로 統一하기爲하야 에디오피아는 伊太利에 對하야 에디오피아領土를 一部割讓할것을 要求함

一、萬若에디오피아에對하야 海洋으로의 出口를 與할 境遇에는 伊國을 通하야할것으로 하나 即 伊領소마릴란드或은 에리트리아의 通廊을 通하야 此를與할것을 要求함

一、五國委員會의 提案에는 에디오피아 警察隊及 憲兵隊의 改造에는 言及하엿스나 에디오피아軍隊에 對하여는 何等 言及한바가업다 伊太利는 에디오피아軍의 大部分을 廢止解除하고 殘餘의軍隊는 伊太利의 指揮統制下에 두기를要求한다 (寫眞은 뭇首相)

【羅馬二十二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二十二日 閣議의結果 五人委員會의 和協試案을 拒否하엿는데 依然 和協工作의 餘地를留保하고 새로 에디오피아國에關한 最少限度의 要求를 提言하야 聯盟理事會의 考慮를要請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새로 和協工作의 基礎로 伊太利政府가要求하는바는 大體로 左와如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에디오피아國의 領域에 對하야 國有의 領土와 征服에依하야 併呑한 領域과를 區別하야 伊太利政府에서는 征服에 基한 領域의 分割을 要求함

一、伊太利政府의 管轄下에 에디오피아國全土의 軍事統制를 實施하야 伊太利植民地의 安全保障을 圖함

一、에디오피아政府에 제이라通廊을 附與하야 海洋으로의 出口를 與함

一、五人委員會의 試案은 一九〇六年 十二月 英、佛、伊三國政府間에 締結한 條約을 無視하고잇다 伊太利政府는 同條約에 基하야 自國의 特殊權益이 充分尊重될것을 要求한다

五人委員會에表示한 伊國政府意向

和協試案의不滿한點指摘

【제네브二十二日發聯合】五人委員會는 佛國代表 라발首相의 歸還을 기다려 二十三日緊急會議를 開催하고 伊太利政府의 意見에 基하야 和協試案을 修正할 餘地가잇느냐 업느냐를 決定하기로 되엿다 一方 議長데·마다리아가氏를 爲始하야 英國代表 이든無任所相 波蘭代表外相 土耳其代表아라스外相等은 伊太利代表部와의 折衝에依하야 和協試案에對한 伊太利政府의 眞意를 探知하고 委員會로서取할第一次의 方策에對하야 愼重히 考慮를 하고잇다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은 廿二日 午前 急遽마다리아가氏와 會見하야 此際 和協試案에 關한 本國政府의 意見을 通牒하고 不充分한 條項과 不同意하는 條項에 亘하야 懇懇批判을 加하야 右試案이 伊太利政府의 要求를 滿足케하지못하는 個條를 指摘하얏다고 傳한다 알로이지代表는 本國政府에서 온 回訓을 携行하야 必要한 境遇에는 逐一 全文을 朗讀하얏스나 特히 文書를 提示치 안코 마다리아가議長은 알로이지代表의 批判要旨를 聽取하얏다고 傳한다 마다리아가議長은 即時 英國代表에 對하야 會見經過를 報告하얏는데 伊太利政府의 意見은 다음과가다고 解釋되다 五人委員會가 伊에兩國의 紛爭에對하야 調停斡旋에 努力하고 잇는것은 伊太利政府의 深謝하는바이나 今回의 和協試案은 伊太利政府의 覺書에 基한 當然의歸結을 考慮에 너치안코 伊太利植民地의 安全保障에對하야 伊太利政府의 希望을 滿足식히지안코 따라서 伊太利政府로서는 右試案을 受諾할수업스나 聯盟理事會의 調停을 全的으로 拒否하는것은 아니다 五人委員會에서 試案에 相當한 修正을 加하야 公正한 代案을 提示함에 이르러서는 右試案을 討議의 基礎로 受諾하야 誠實히 考慮함에 吝嗇치안는다

不充分條項

一、和協試案에 잇서서 에디오피아領土의 一部割讓을 提言하고잇스나 讓渡範圍의 不充分을 免치못한다 伊太利領에리트리아와소마릴란드를 結合하는 鐵道建設의 權限은 伊太利政府가 條約에 基하야 讓渡하는 旣得權益인데 伊太利政府로서는 右權益을 充分히 行使키爲하야 에디오피아領土의合併으로 南北兩植民地를 結合할必要를 認한다

一、試案에서 外人顧問을 選任하야 에디오피아國의 行政을改革하는 旨를 提言하고잇는데 外人顧問의 國籍을 明示치안코 伊太利政府의 參加範圍는 不充分함을 免치못한다

一、試案에서는 武器取引의 取締와 密輸出入防止를 規定하엿스나 各州에 會長이 割據하야 任意로 武器를 所有하고 隣接伊太利領土의 安全을 威脅하고잇는 現狀에잇서 單純히 取締로는 到底히 治安維持의 目的을 達成할수업다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軍의 武裝을 解除하는것이 必要하다고 思惟한다

不同意條項

一、今回의 試案에는 英佛兩國政府가 제라通廊을 割讓하야 에디오피아政府에 對하야 海洋으로의 出口를 賦與한다는 旨를 提言하엿는데 海洋으로의 出口를 與하는 結果는 武器의 密輸出入의 防止取締에 더욱困難을 加하게될것이다 에디오피아政府는 一九三一年 伊太利領 에리트리아에잇서 海洋으로의 出口를要求하엿스나 伊太利政府는 此를 拒否하엿다 伊太利政府는 自國領域의 割讓에依한는가 또는 他國領土의 讓與에依한는가를 不問하고 에디오피아에 海洋으로의 出口를 賦與하는데는 反對한다 그리고 領土割讓範圍에 對하야 알로이지代表는 必要한 要求를 提示하엿는지 判明되지안흐나 에디오피아國의 領土로 現世紀固有의領域과 征服에依하야 併呑한 領域과를 區別하야 後者의 割讓을 要求하지안는가한다

英伊重大會談!

制裁規定의發動을압헤두고 駐伊英大使드氏伊首相會見 時局에重大影響?

【倫敦二十三日發聯合】호어外相은 二十二日羅馬駐剳드라몬드大使에 對하야 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하라고 訓令한 模樣이다 伊에兩國의 紛爭의 重大化한以來 뭇솔리니首相은 드라몬드大使를 忌避하야 只今까지 會見하지안헛든지 制裁規定發動을 압두고 뭇솔리니首相도 多少反省하는빗치 보히는바 大使와의 會見이 實現되면 歐洲의 國際政局에 重大影響을 與하리라고 觀測되다 (寫眞은 드氏)

英伊會談內容

【電通倫敦廿二日發】伊에關係가 急迫된此際 二十日 駐伊英大使 드라몬드氏가 羅馬에서 스비치 伊外務次官과 會談한것은 異常한 注目을 끄러 會談內容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臆測이 盛行되고잇는데 二十二日 英外務省當局은 右드라몬드 스비치會談의 內容을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駐伊드라몬드大使는 二十日스비치伊外務次官과 會見하고 地中海方面에잇서서 英國艦隊의 行動과 警備隊의 充實에 言及하야 英國으로서는 此를 何等 攻擊的意圖下에서 行한것이 안이라 過去 數週間에 亘하야 伊太利新聞이 猛烈히 反英論陣을 베풀고 英國側에 對하야 자못 不快한 印象을 與한結果 不祥事가 發生할것을 念慮하고 미리 對策을 講究한것이라고 說明하엿다 一方 스비치伊外務次官으로부터 地中海方面에잇서 伊太利의 軍事工作도 英國과同樣으로 何等 攻擊的目的을 가진것이아니라 純全한 豫防的性質을 가진데 不過한다는旨를 言明하엿다

雨季의漸次終了로 軍事行動無碍

【電通羅馬廿五日發】東阿遠征軍의 情報에 依하면 三個月에亘한 에디오피아의 雨季도 二十日前後부터 漸次 끗나게되어 南部即 伊領소말릴란드로부터 에디오피아領 오가덴沙漠에 이르는 地方은 이미 赫赫한 太陽을 바라보게되고 北部 即 伊領에리트리아로부터 에디오피아領 티그레及 아라라地方에는 좀小雨가 잇스나 벌서軍事行動을 妨害할 程度는 아니므로 伊軍及 伊領土人軍總計二十萬의 將士는 戰機의 切迫을 豫感하고 緊急을 加하고잇다고한다

마議長各代表와協議

【제네브二十二日發聯合】五人委員會의議長 데 마다리아가氏는 二十二日午後 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과 會見한後 英國代表이든無任所相과 會談을 遂하고 그다음에 總會議長베네쉬氏를訪問하고 會談을 遂하엿다

本紙夕刊八面

聯盟은拒否外無道

모다爆彈的要求로和協基礎는못된다

事態惡化不可避形勢

【電通쥬네브二十二日發】二十二日 알로이지伊代表로부터 마다리아가 五國委員會議長에게 提出하엿다고 傳하는 뭇솔리니伊首相의 和協代案에關하야 聯盟側에서는 벌서부터 絶望的觀察을 나리고잇다 即뭇솔리니 伊首相이 抱懷하고잇는解決條件을 提示한데 依하야何等의 事態의進展을 豫期하는 樂觀論이잇는데 對하야 聯盟當局高官側에서는 傳하는바와 如한 三條件은 實로 爆發的要求와 가튼것이다 라는 强硬的意見을 漏洩하고잇다 그리고政治家間에도 秘密히 全然滿足할수 업는案이라고 소래가나오는 現狀이다 그리고 聞한바에 依하면 아마現在의 代案만으로는 和協工作의 基礎가될수업다는 見解로서이것을 拒否할려인바 玆에 事態는 益益惡化하야 伊에開戰은 不可避라고 觀測된다

佛首相壽府向發

【쥬네브二十二日發聯合】佛國代表 라발首相은 伊太利政府代案의基礎的示唆를 要求하게되엿슴으로 二十三日 쥬네브에 歸還하야 各國代表와 折衝을 遂하기로되엿다

伊國의代案提出은 和協工作과不絶緣意味

英佛伊三國間行하는虛虛實實의外交戰과 和協案拒否케된裡面

【電通쥬네브二十二日發】뭇솔리니伊首相이 二十一日 閣議에서 和協試案을 拒否하는 意向을 明確히한 곰뮤니케를 決定發表하엿고 또 伊太利가 要求하는바를 代案의 形式으로 五國委員會에 送附하기로 하엿는데 이에 이르기까지 英佛伊三國間에 虛虛實實의 外交戰이 展開되엿섯다는것이 佛國側에서 判明되엿다 即 라발佛首相은 五國委員會의 和協試案이 伊太利의 에디오피아에對한 干與制度를 明示하지안흔 點으로써 後日 伊太利에 有利한 實質的利益을給與하는 機會를 留保하는것이라하야 어떤點에對하여는 將來佛國의 可能한援助를 伊太利에 與할것을 暗示하고 羅馬駐在산브랑大使를通하야 屢屢伊太利를 說服케하야 산브랑大使는 十九、二十兩日에亘하야 스비치伊外務次官과 右特殊交涉을 行하고 다시 二十日에는 뭇솔리니伊首相과 會見談判하야 오직 態度緩和를 懇望한바 뭇솔리니首相은 그러면 萬若 쥬네브에 모혀 列國이 그制裁手段으로 軍事的行動을 取하지 안는다는것을 誓約하면 英伊開戰의 危險을 防止하기 爲하야 埃及과 對立한 伊領리비아에 잇서 軍事的施設을 中止할 準備가잇다고遞하엿다 이것은 산브랑大使及 라발佛首相을 通하야 이든英代表에게 傳하엿든바 이든氏는 制裁手段에 미리制限을 附하는데는 同意하지안켓다고聯盟原則支持를 强調하고 이에對하야 라발佛首相도 英國과 步調를 가티하겟다고 述하지안흘수업는 苦境에 陷하엿는데 이事情을 周知한 뭇솔리니伊首相은 英國이 어데까지 强硬하야 自己의主張을 固執하면 伊太利도 軟化하는 態度를 보일것이아니라고 即時 二十一日閣議에서 그의强硬한 拒否聲明을 發하엿다 그러나 뭇솔리니首相은 右에依하야 即時 聯盟의和協工作과 全然 絶緣하려하지는안코 玆에代案을 提出하기로된것이다

和協의餘地尙存

伊拒否와英政府見解

【倫敦二十一日發聯合】伊太利政府의 五人委員會案拒否聲明으로 英伊兩國關係는 俄然 表面衝突의 危機에 直面하게된모양으로 볼드윈首相은 日曜日임에도 不拘하고 二十二日 체카스의別莊으로부터 急遽 다우닝街官邸로 歸還하야 來週初 重要閣議를 開催할것으로 보인다 官邊에서는 伊太利政府가 五人委員會에 對하야 正式回答을 手交하기까지 英國政府의態度는 決定할수업다고 一切 沈默을 지키고잇는데 政界方面의 一致한 見解는 伊太利의 拒否聲明에는 아직 不少한 和協工作의 餘地가 잇다고 和協工作에의 門戶가 閉鎖된것을 『잡을쇠가 걸엇다』는 程度로보고잇다 伊太利政府의 五人委員會案 拒否決定을 繼續한 英國政府의 立場을 綜合하건대 如左하다

一、英國政府는 伊太利가 五人委員會의 和協案을 拒否하엿는데 이에 關하야 特別히 驚愕하고 또는 特히 失望을 感할것은 아니라고 보고잇다

一、如何든 伊太利政府의 곰뮤니케로써 推斷하야 和協工作의 餘地가 아직 잇는것은 明白하다

一、그리고 伊太利政府는 五人委員會案을 拒否한以上 그要求의 最少限度가 무엇인가를 明確히할 義務가잇다 이것업시는 五人委員會의 事業促進을 期待하기는 不可能한것을 覺悟치안흐면 안된다

一、英國政府는 當初부터 問題의核心이 聯盟規約그것의 運命에 달렷다고 보고잇는데 今後에도 聯盟規約尊重을 爲하야 斷乎한態度를 取할決意를 가젓다 이點에 關해서는 쥬네브의 英佛代表部는 完全히 見解가 一致되엿다 이러타면 伊太利政府가 聯盟規約 支持의 態度를明白히하야 和協達成을 爲하야 協力하기를 希望不已한다

一、八月 二十二日의 全員閣議當時 英國海軍은 萬一의 境遇에 備할 準備가 업서 英國으로서도 그主張을 强調하는데 不少하게 躊躇할밧게 업섯스나 今日의 事態는 全혀 一變하야 英國은 이미 如何한事態에 對해서도 適當한 措置를 取할準備가 完了되엿다 따라서 閣議에서는 政府는 斷乎한 決意를表明할수가 잇다고 보고잇다

最少限度의要求 伊國에明示要求?

아즉折衝의餘地잇다고보고 五國委員會二段工作

【쥬네브二十一日發聯合】五人委員會는 二十一日午後의 會議에서 伊太利政府의 正式回答이잇기까지는 態度決定을 留保한다는旨를 決定하엿는데 右正式回答은 二十二日 乃至 二十三日에 到着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五人委員會의 正式報告提出時期도 二十四日以後라고 보이는바 事態의 急迫에 鑑하야 關係者間에 第二段의 工作을 爲하야 盛히 折衝을 開始하고잇다 如何튼 伊太利政府의 決定은 不少하게 聯盟當局을 失望케하고잇는것은 事實인데 伊太利政府의 正式곰뮤니케가 五人委員會의勞力을 多少라고하는 言을 明記하고 從來 委員會의 存在까지 無視해온 態度로서 본다면 今回의 곰뮤니케로서는 重大轉向이 認定되는곳에 不少하게希望을 두고잇는것은 明白하다 알로이지男이 데·마다리아가議長과 會見한席上에서 伊太利政府의 決定은 和協工作에 對하야 全面的으로 門戶를閉鎖한것이라고 言明한것도 加하야 아직 五人委員會는 活動의 餘地가 存在해잇다고 보고잇스나 그러나 今後의 問題는 五人委員會가 어느程度까지 伊太利政府의 主張에 讓步할수잇는가 함인데 英國代表部와 如한것은 五人委員會案以上의 讓步는 聯盟規約의 冒瀆이라고 主張하고잇스므로 聯盟의 和協工作의 前途는 아직 幾多의 難局에 逢着치안흘수 업슬것이다 또 一般으로 五人委員會는 伊太利政府의 拒否에 對하야 受諾한後 다시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그公式곰뮤니케에 言及한『最少限度의 要求』에 關하야 明示를 要求할것으로 보이어 今後의 聯盟對伊太利政府의 關係는 이伊太利의『最少限度의要求』의 內容을 中心으로 展開될것으로 보인다

美濃部問題餘波

機關說問題鋒鋩 一木金森氏에게!

陸海兩相이機關說信奉者를 官職에안두도록希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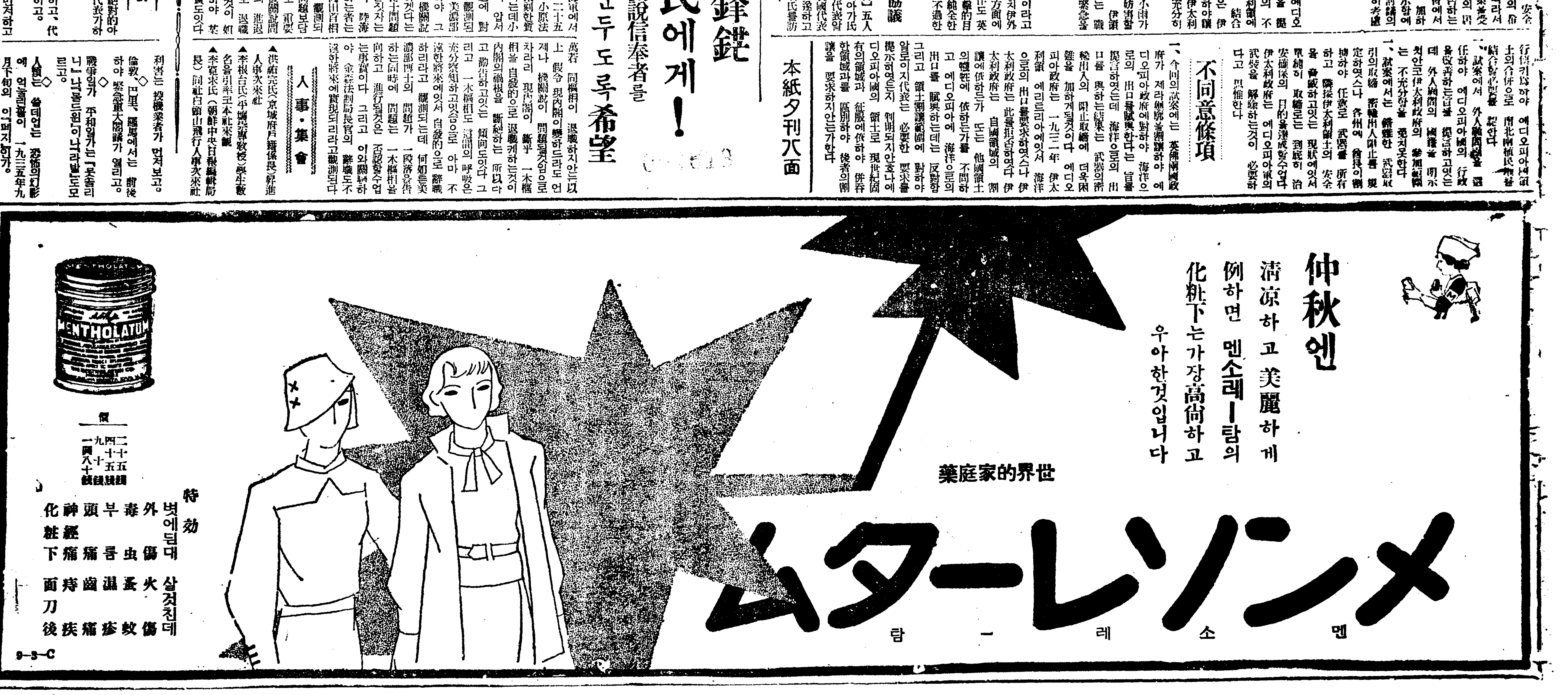
【電通東京電話】美濃部博士의聲明取消에 對하여는 陸海軍에서도 아직 釋然치못함으로 二十五日로 延期한 閣議에서 小原法相에 對하야 相當히 深刻한 質問이 잇스리라고 觀測되는데 小原法相도 此等의 質問에 압서 閣議席上에서 右取消問題에 對하야 詳細報告하리라고 觀測되다 그리고 小原法相은 美濃部博士의 聲明取消에 對하야 그經過를 說明한後 將來 機關說에 對하야 嚴重 取締하겟다는 旨를 言明하고 美濃部博士問題는 이것으로써 一段落을짓자는 旨의 諒解를 求할것이나 陸海兩相은 機關說을 信奉하는者는 官職에 두지안흘것을 岡田首相에게 嚴重希望하리라고 觀測되는바 그推移가 美濃部問題보담도 機關說問題의 本體로 重要視되게되엿다 그리고 機關說問題의 本山인 一木樞相의 進退에 對하여는 自發的으로 退職케하도록 工作을 施한는것이 如何하냐고 岡田首相에對하야 某關係로부터 進言한 事實도잇다 萬若 同樞相이 退職하지안는以上 假令 現內閣이 變하드라도 언제나 機關說이 問題될것임으로 차라리 現內閣이 斷乎 一木樞相을 自發的으로 退職케하는것이 內閣의禍根을 斷絶하는 所以라고 勸告하고잇슴으로 아마 不遠한將來에잇서 自發的으로 辭職하리라고 觀測되는데 何如든美濃部博士의 問題가 一段落을告하는同時에 問題는 一木樞相을 向하고 進行될것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 그리고 이와關聯하야 金森法制局長官의 辭職도 不遠한將來에 實現되리라고觀測되다

人事·集會

▲洪祐完氏(京城府戶籍係長)昇進人事次來社
▲李根台氏(平壤崇實專敎授)學生數名을引率코本社來觀
▲李寬求氏(朝鮮中央日報編輯局長)同社白頭山飛行人事次來社

八面鋒

拒絶은 政府가하고、絶對的아니라는 諒解運動은 代表가하고。
◇
軍艦은 地中海에 모히고、代表는『쥬네브』에 모히공。
◇
戰爭은「뉴-스」에서 먼저하고 利害는 投機業者가 먼저보공。
◇
倫敦、巴里、羅馬에서는 前後하야 緊急重大閣議가 열리공。
◇
戰爭일가 平和일가는『뭇솔리니』나 몰드윈이나 라발도 모르공。
◇
人類는 쓸데업는 恐怖의幻影에 언제될이 一九三五年九月下旬의 이페지는가。



京圖線에또共產軍 進行列車顚覆襲擊

今曉新京發、敦化方西에서

死傷者前後二十六名

【新京二十六日發至急聯合】 신경을떠나청진(淸津)으로 가는제이백일호 국제렬차가 이십삼일오전령시 삼십분 경도선 돈화(敦化)의서편위호령 왕송전 (威虎嶺—黃松甸)사이에서 공산군의 엄습을바더 기관차와 수하물차는 전복되고 객차한채도 탈선전복되어 전사자열한명 중상자 아홉명을내엇는데 나머지 승객은 후부렬차에 수용보호중이요 부상자는 순경한명 경승병한명 조선인과 일본내지인승객 각한명 만주국 승객다섯명이다

【新京二十三日發聯合】 렬차습격의 보도를밧고 오전삼시오십분 길림(吉林)으로부터 구원렬차가 급히출동하엿다

三百名一齊襲擊

日本人은大部分重傷

【新京二十三日發聯合】 신경발청진(淸津)행제이백일호렬차가 이십삼일오전령시반에 경도선돈화(敦化)서방위호령(威虎嶺)왕송전(黃松甸)간 신경기점이백팔십오「키로」되는 지점에다다르자 선로에파괴개소가잇서 긔관차와수하물차(手荷物車)는 끌작으로떨어지고 회차한량은 탈선전복되얏는데 이틈을타서 잠복하얏든 공산당약삼백명이 일제습격을하야 렬차경승병(警乘兵)은 즉시응전하야 약십배나되든 공산당을 고전(苦戰)하든끄테 드디여 격퇴하얏는데 일본인경승병의 태반은 중상을입엇다

救援간列車도顚覆

【新京二十三日發聯合】 렬차습격의 급보를밧고이십삼일 새벽령시오십분에 이도하자(二道河子)로부터 현장에 급행한 장갑렬차는 도중이도하자를 상거하기 이백팔십삼「키로」되는 곳에서 선로에파괴를 당하엿기 때문에 탈선전복되엿다 이때문에 병대여섯명은상처를 내엿다

平壤赤勞事件 共大出身等送局

五月에檢擧以來取調中이든 勞働街에숨엇든五名

【平壤支局電話】 평양경찰서에서 금년오월십이일 밤중부터 십삼일 새벽까지에 고등계형사대삼십여명을 동원하야 평양부평천리(平川里)병기제조소(兵器製造所)부근의 로동자의거리를비롯하야 부내각처의 공장가(工場街)에 일대검거진을치고 로동자이십이명을 검거하고 그후다시 황해도겸이포(兼二浦)로부터 수명의로동자를 인치하고 지금까지 취조중이든 조선공산당 재건운동(朝鮮共產黨 再建運動)과 태평양 적색로동조합 (太平洋赤色勞働組合)에 소속한 평양적색로동조합(平壤赤色勞働組合)에 의한 로동자들의 적화사건(赤化事件)은 사개월만에 겨우 모든취조를 마치고 구혈이십삼일 다음의 다섯명을 치안유지법위반사건(治安維持法違反事件)으로기소의견(起訴意見)을붓처 일건서류와함께 작극다섯명을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국하엿다

原籍 平安南道安州郡燕湖面
住所 平壤府平川里
自由勞働(모스크바共產大學卒業) 金鎔範(三?)

原籍 咸鏡北道
住所 平壤府
金鎔範의妻(모스크바共產大學卒業)(女) 朴正愛(三?)

原籍 咸鏡南道
住所 黃海道兼二浦邑
自由勞働者 朱與河(三?)

原籍 平安北道宣川郡
住所 不定
프로핀테른連絡員 朴君泌(四五)

原籍 平壤府箕林里
住所 同
靴下職工 朱炳德(二四)

이박게 기소유예(起訴猶豫)의견에의한서류만 송국한자가 십칠명이다

兵器廠에潛入

김용범(金鎔範)은 소화오년『모스크바』공산대학(共產大學)에재학중녀자부에 재학하고잇든 박정애(朴正愛)와 련애관계(戀愛關係)를 맺고 소화칠년공산대학을졸업하자 곳 이두명은『모스코바·푸로핀테른』으로부터 평양의 자유로동자계급적화의 중대지령을밧고 소화칠년가을에 평양에 잠입한후 부내각처의 자유로동자의 집합장소에서 적화공작에 몰두 하엿스나 일터가 일정치못한 자유 로동자를 획득하야 조직 한다는것은 도모지 불가능한것임을 깨닷고 소화구년봄부터 확장공사를 시작한 평양병기제조소(平壤兵器製造所)의 공사장에인부가되여 적화운동을하는일방 병기제조소의 직공에게 대하여서도 적화의손을페며 적색노동조합의 조직에 착수하야 동지로서 주병덕(朱炳德)을획득하고 동인을 지도하야 양말직공사이에도 적색노동조합의조직을 계획하고 다시동인을 겸이포에 이주시켜서 일철겸이포 제철소(日鐵兼二浦製鐵所) 직공들의회에 노력한중에 모다체포되엿든것이다 박군필(朴君泌)은 만주국(滿洲國)모방면과 해삼위(海參威)방면에잇는『프로핀테른』과 평양동지간의 련락을하며 중대한지령을 운반련락하기위하야 항상 조선과로서아방면을 왕복하고 잇섯든것이다 주녕하(朱與河)는 김용범과협력하야 적색노동조합 조직에 로력하는일방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의 지령에의하야 조선공산당의 재건운동으로 동지획득에분주하든중에 체포된것이다

在中朝鮮人各派 南京에大同集結

平津上海地方선根據를일헛스나

今後의動向이注目處

십월일일의 시정그녀일과 대연습을압두고 특별경계를 실시하고잇는 경각국에서는 보안과등정(鄭井)사무관을 상해(上海)남경(南京)북평(北平)천진(天津)방면에 파견하야 조선이관계를조사하게 하엿든바 룡정사무관은 이상일선에 취임하엿는데 현재의 중국방면에잇는 조선인의모종은동경향은 다음과갓다고 말한다

중국방면에잇는 조선인민족운동자 또는공산운동자는 재래에는 상해 남경 평진(平津) 지방등지에 각기 산재 하며 또 당파적 으로도 분리 되어잇섯든바 북중(北中) 정세가 일변하고 또상해의 일본경찰세력이 확충된 최근에잇서서는 평진지방과 상해에서는 운동을 전개하기가 끈난할뿐아니라 중국정치의 중심은 정치남경(南京)수도에 집중되고잇는 관계도잇서 북평지방에 잇든 김원봉(金元鳳)안공근(安恭根)등 상해에 잇든 김구(金九)일파의 직접파들과 기타각지에 산재하엿든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계운동자는 전부 남경에모여들러 거기서 대동단결하야 그세력의 확충을 도모하고 잇다한다 남경은 일본관헌의 권연 행사안되는곳으로 국민당정권이 확립한지방으로 취체검거할방책도 업는곳이라는데 따라서 그들의 상해북평시대보다선전의힘은 감쇄될는지몰으나 한곳에 모여 그세력이 단결되며 집중한것은 비상히 주목할 현상으로 이에대하야는 금후 정보긔관을 식혀 엄밀히 내사한후 그들의 조선내에대하야획책잉이할것을 방비할터이라 한다

拷問에"自白"해도 寃罪補償못한다

경찰서에 의혹을 주게하엿다고

無罪된江界"殺兄事件"의結果

아모리 고문을 당하여도 허위자백을하면 후일 무죄백방이되여도 형사보상금을 밧지못한다는 실례=평북 강계군 문옥면 문흥동(江界郡文玉面文興洞)김세영(金世英)(?)은 지나간 소화팔년십일월이십륙일밤 그이복형인 지성유내(慈城邑內) 김세진(金世鎭)(?)을 살해하엿다는혐의로 동년 십이월십이일 지성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新義州)지방법원 검사국에 살인죄로 송치되어 공판에 회부되엇스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의판결을 밧게 되엇섯는데 검사의공소로 평양복심법원에서 일심의 무죄와는 극반대인 사형의 판결을 바덧섯다 그리하야 피고가 불복상고한결과 지난 팔월십팔일 경성고등 법원에서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의 판결을 바덧다 그리하야 김세영은 영도(永島)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그동안 오백팔십사일간구류일자를 매일 이원씩 계산하야 일천일백륙십팔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엿섯는데 이십삼일부로 그건이 각하되엇다 이 각하의 리유는 김세영이가 위증과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한 사실은 이미 일심과 고등법원의 판결로 명백하여젓스나 최초에 그가 『아리바이』(現場不在證明)을 한다는것이고의로써 그살인사건이 생기든날밤자기가 강건너 만주국인모의 집에 잇섯다고도 하고 또부근 술집에 가서 잇섯다고 경찰의 심문에 진술을 하엿기때문에경찰에서도 거기에 의혹을두고그와가티엄한 심문을 하게되엇든 것이오따러서 그것은 피고의실책이엇스므로 형사보상금을 주지아니한다는것이다

本妻所生五歲兒 虐待折脚한毒婦

근처사람들이 광경을보고 고발

傷害罪로仁川警察에서取調

【仁川】 본남자식을 난다하야 다리를 부러트린 독부=인천부내 송림리(松林里)백팔십오번지 림도형(林道亨)(?)의후실 강금년(姜今年)(?)은 항상 그본실 소생 원수(元壽)(?)를 미워하기 아니하야 그남편이업는 사이면 항상 광속가튼곳에 가두워두고 밥을굼기며 무수난타하든등 학대가 자심한든중 지난이십일 오후사시경 그남편이 업는틈을 타서 뒤들에 동여매여노코 난타하다가 맛참내 외인편다리를 부러트리자 원수가 최후에비명을 내이게됨에 동리사람이 이를듯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전긔동부를 진채하며 소관파출소에 알리여 맛참내 상해죄로검속되엿다한다

德壽宮美展 全部交替

이십칠일반입

덕수궁(德壽宮)의 근대미술전람(近代美術展覽)은 지난소화팔년 십일월일일에 공개하야 작년에제이회의 출진열교대(出陳列交代)를하얏섯는데 이번에 제삼회의 출진열을 다시하야 예술의가을을 더욱 장식하리라는데 이십륙일오후한시부터 림시휴관을하얏다가 십월일일에 새로히 공개하리라한다

이번에 새로진렬하는 작품은 동경(東京)에서 십구일부터 발송하기시작하야 이십일일까지에 발송을 마치엿고 이십칠일부터는 경성에서 반입(搬入)하야진렬에 착수할터이라한다

被告의大部分 事實을否認

全北教員團續行公判

書籍만은읽은일잇다고

【全州支局電話】 전북 적색교원(全北赤色教員)사건 제삼회공판은 이십삼일 오전아홉시삼십분부터 전주지방법원 상야(上野)재판장 주심하에 속개되엿다 사실심리에 들어가 먼저 검긔흡(金琪汁)과의 일문일답이 잇섯는데 검긔흡은 사상운동에 관련한일은 전주농업학교 재학중에 교내에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야 연구만하엿슬뿐으로 적색교원사건에는 관계가 업다는 답변이잇슨후 채도석(蔡道錫)도 역시 사실을 부인하엿다 고복술(高福述)은 농교재학당시 독서회에 참가한일과 교원사건을시인하엿스며 박영무(朴永武)는 사회과학서적은 상식으로읽을목적으로 구독한사실을 말하야 자긔는 원체빈농의 자질로서 농민의곤궁을 목도하야 어떠케던지 농촌갱생운동을 생각하든나머지 농업학교를 졸업한후 농우계(農牛稧)를 조직하야 오로지 생활향상에 노력하엿슬뿐으로 기타사상사건에는 관여치안한 뜻을말하엿다

다음에 림화래(林和來)는 사건전부를 부인한후 일문시에일단 폐정하엿다가 동시사십오분에 다시속행하기로되엿다

信託바든土地 賣喫하고被訴

所有權者가入監中에犯行

鍾路署서取調中送局

사람의 불행을 리용하야 자긔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필경 횡령혐의를 밧고 취조를 바든후 검사국으로 너머간 부자가 잇다 부내 가회동(嘉會洞)일번지의 이십호에 사는 부호 김상완(金相完)은 약이주일전 방금 마산(馬山)사긔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인 김호권(金昊權)으로부터 신탁물(信託物)횡령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야 종로경찰서 사법계에 취조를 밧든중 횡령사실이 명확하여야 이상일전 필경 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 그는 소화칠년 칠월경에 고소인 김호권이가 소외인(訴外人)야구(野口)모에게서 가회동일번지 이십호에잇는 토지 칠백구십여평(坪)을 매평에 팔원식 작정하고 대금은 그토지를 파른후에 주기로 계약한후 그중 이백여평을 고소인은 전긔피고소인 김상완에게 사천사백원에 파른다음 지주야구모에게 분할이전등긔를 요구하엿스나 그는 분할하려면 수속이 복잡하야귀치안흐니 모다파른후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여가라하야 부득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상의한후 피고소인이 나머지토지대가를인시고소인에게 빌려주어 전부피고소인의 명의로 소유권을이전하야 결국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토지오백구십여평의 신탁을 박게되엿든것이다 그런데고소인은 얼마안되야 광산사긔사건으로 영오(囹圄)의 몸이 되엇슴으로 피고소인은 최초부터 신탁 바든것이 아니라 자긔가 산것이라하야 반환 요구도 듯지 안코 그토지를 다른사람에게얼마간 파러먹엇다는것인데 그토지갑시 지금엔매평에 오십원식이나되야 약일만여원을 피고소인 김상완은 횡령한것이라는것이다

運動競技欄

京畿中等校陸上對抗 養正軍再次優勝

十二種目記錄을更新

賞讚할第一高普의進境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 第二回京畿道男子中等學校對抗陸上競技大會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二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렷든바 이날 午後 또는 決勝戰에잇서서 本大會의記錄을 十三種目이나 更新하야 中等校陸上競技界의 큰收穫을 거두엇는데 總得點으로는 常勝의 養正高普軍이 參加한十一個校中에서 斷然首位를占하야 榮冠을 再次 차지하엿다 그리고 參加校의 成績과順位는 다음과갓다

【[illegible]決勝】 [illegible]四六米 [illegible] 四四米三四 3張聖壽(養正)四一米二八 4野永(龍中)三九米三三 5裴鳳守(普成)三八米四〇

【高障碍決勝】 1柴田(仁商)一七秒三 2蘇鎭南(一高)一七秒八(本大會新記錄) 3安保(京師)一九秒一 4鈴木(京中) 5藤野(京商)

【百米決勝】 1李英敏(一高)一一秒三(本大會新記錄) 2李鍾瑛(仁商)一一秒七 3北野(京工) 4李景義(養正) 5瀨田(龍中)

【千五百米決勝】 1孫基禎(養正)四分一八秒三 2李敏弘(二高)四分二八秒四(以上本大會新記錄) 3李泰逌(二高) 4金道鎭(一高)

【走高跳決勝】 1鎌田(京商) 一米七〇 2張學壽(養正) 一米六〇 蘇鎭南(一高) 安保(京師) 北野(京工) 茂原(京中)

【二百米決勝】 1李英敏(一高)二三秒五 2李景義(養正)二四秒四 3李鍾瑛(仁商) 4內田(龍中) 5張基虎(普成)

【八百米繼走決勝】 1一高팀(朴商玉 蘇鎭南 李海宗 李英敏)一分三八秒四 2養正팀(白承旭 吳壽泳 李景義 金克煥) 3龍中팀

【五千米決勝】 1孫基禎(養正)一六分五一秒三 2李泰逌(二高)一七分一一秒一(以上本大會新記錄) 3金道鎭(一高) 4金道植(二高) 5李基萬(養正)

【走幅跳決勝】 1鎌田(京商)六米三五(本大會新記錄) 2安保(京師)六米〇三 3郭仲範(養正)五米九七 4松下(京中)五米五五 5柴田(仁商)

【四百米決勝】 1牧鼎(龍中) 五五秒 2李景義(養正) 五六秒九 3中原(龍中) 4吳壽泳(養正) 5山本(龍中)

【投圓盤決勝】 1白承旭(養正) [illegible]

米一六(以上本大會新記錄) 3金鋼完(養正)三〇米〇九 4朴商玉(一高)二八米五九 5滿田(龍中)二六米二三

【低障碍決勝】 1滿田(龍中)二八秒四(本大會新記錄) 2蘇鎭南(一高)二八秒五 3中川(龍中) 4榮田(仁商) 5中原(龍中)

【三段跳決勝】 1滿田(龍中)一二米九三(以上本大會新記錄) 2鎌田(京商)一二米〇八 3金漢?(二高)一二米三三 4崔相弼(仁商)

【千六百米繼走】 1養正팀(李景義 吳壽泳 孫基禎 ?)三分四三秒四(本大會新記錄) 2龍中팀 3一高팀 三分五一秒三

各校得點順位

【順位】		(류래)	(필드)	【總得點】
1	養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	一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3	龍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4	仁商	一四	二一·六分	三五點六分
5	二高	一八	一五	三三點
6	京商	一	一七·三分	一八點三分
7	京師	三	一〇·三分	一三點三分
8	京中	二	四	六點
9	京工	一三	二	一五點
10	普成	一	二	三點

中等校庭球大會

儆新 朴、崔組遂優勝

徽文高普決勝戰에敗退

京城藥學專門學校主催 第五回全朝鮮中等校個人庭球大會兼 明治神宮 朝鮮中等代表選拔大會第二日은 二十二日 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第一日의勝者들로서 第三回戰이開始되엿다 地方에서 出戰한 平壤農林校의 金世羽、金潤豊組와 平壤高普의 林鶯鎬 崔潤洙組는 幾多의 難關을 突破하고 準決勝에서 惜敗하엿스며 決勝은京城의兩雄 儆新、徽文이 對時하야 儆新軍이 四對一로 榮譽의優勝權을 獲得하엿는데 第五回戰以後의 競技經過는다음과갓다

【第五回戰】
平高(林鶯鎬 崔潤洙) 4…2 徽文([illegible])
儆新(朴龍振 崔處福) 4…1 養正([illegible])
平農(金世羽 金潤豊) 4…1 道商([illegible])
徽文(李景燁 金亨泰) 4…1 中東([illegible])

【準決勝戰】
儆新(朴龍振 崔處福) 4…2 平高(林鶯鎬 崔潤洙)
徽文(李景燁 金亨泰) 6…4 平農(金世羽 金潤豊)

【決勝戰】
儆新(崔處福 朴龍振) 4…1 徽文(李景燁 金亨泰)

崇專蹴球團

二十四日朝入京

【大邱】 日本에遠征하야 好成績을남기고 도라오는 平壤崇實專門蹴球團은 歸途當地에서 一戰을行하고 二十四日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으로到着할豫定이라한다

全日本中等籠球

光成一勝

【遞通東京電話】 第十二回全日本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 第一日은 六十七校參加下에 二十二日午前八時부터 YMCA 文理大 明大 府立一中의四코-트에서擧行한바 平壤光成高普軍은 京都一中을 二十三對十二로 無難히이겻다

光成高普 23 (14…8、9…4) 12 京都一中

今秋東京에派遣할 各種代表八十一名

今秋東京에서 열리는 第八回明治神宮體育大會에 派遣할 朝鮮代表選手數를 決定코저 朝鮮體育協會에서는 二十一日 午後一時부터 總督府內에서 理事會를 열고 嚴選한結果 다음의 八十一名을 派遣選手로 決定하얏다

▲水上六 ▲陸上七 ▲軟式庭球一一 ▲硬式庭球五 ▲籠球九 ▲排球一一 ▲卓球四 ▲漕艇八 ▲弓道七 ▲氷上一三 合計八一

이리하야 이들選手派遣에 要하는經費는二千十五圓으로 出發時日은 水上의九月二十八日과 氷上의一月을除하고 其他는十月二十四日 同二十七日의二日間에渡東할터이며 水上과氷上을除外한 全部는 十一月五日에 歸還할豫定이다 그리고經費는 一般寄附에依하기로되엿다한다

殖銀12A 遞信9

京城實業野球리-그戰의 殖銀對遞信試合은 廿二日 午後三時廿五分부터 遞信先攻으로開始한바 兩軍打擊戰으로展開되여 結局十二A對九로 殖銀勝

遞信	300400200
殖銀	30001260A

12A—9

鐵道2A 京電1

京城實業野球聯盟秋季리-그戰鐵道對京電戰은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京城球場에서 京電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二A對一로鐵道勝

京電	000001000
鐵道	11000000A

2A—1

天氣豫報

晴 時時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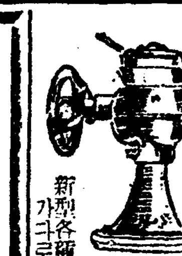
猛勢한颱風은 大東島의東쪽에 잇서 中心은七一〇粍를示하고 北東으로 移動中이다 들의低氣壓은 日本中部의南海에잇다 七五三粍의高氣壓은滿洲로부터 沿海를거처서 半島에퍼저잇다 流珠諸島는 大暗化로東部의南岸은 바람은弱하나 비가오고잇다 朝鮮은晴 朝鮮海峽으로부터 裏日本東北地方은

昨日最高 二八度六分 最低 一二度五分
今日正午 二四度五分

다시 지을것뿐

『바벨론』폐허에서 벽돌 한개를 어더다 고대 풍속을 따라 이서 국사에 쓰든 벽돌에는 당시 왕의 칭호를 인치는 법인대 어떤 어든 벽돌 우에도 물론왕의 칭호를 인첫스나 그 우에 개의 발자옥이 나서 그대로 구어진것이다 이는 필연 그 벽돌을 새루 만들어 문문하엿슬 때에 해빗에 말니는 중에 왓다갓다하는 개가 그 벽돌을 밟븐것이다 그리하야 그 왕의 칭호는 아주 알아볼수 업게되고 개의 발자옥은 왕의 칭호 우에서 분명히 승리를 가진것이다

이와 가티 우리사람이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밧앗지만 그 형상은 다 업서지고 악자의 형상만 남아서 분명히 보이는것이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것은 이 온전히 부패한 인간을 아주 한번 변작하여 하게다 하심이다 이는 곳 새루 지은것이오 거듭나야 하겟다 한리유가여긔 잇는것이니 마치 그 벽돌을 그 대루는 고칠수가 업고 불가불 부수어서 다시 만들고다시 인처서 구어야 할것과 가튼것이다



돈버리大王

리도-式 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가된다

新型各種 가다로구進呈 製菓法傳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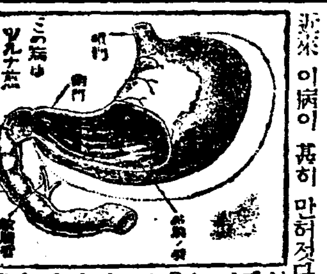
胃潰瘍과 胃酸過多症

慢性胃弱、胃擴張、胃下垂、胃痛 胃아도니-、胃潰瘍、胃가다루、慢性胃病과 常習便秘症에는

皇漢醫藥쓰루나(ツルナ)가第一

ツルナ煎製造元 東京漢方實驗所發賣

近來 이病이 甚히 만허젓다 이것은 主로 散藥이나 錠劑로製造한 胃散과가튼 重曹劑를 쓰는까닭이다. 當所發賣의 쓰루나煎은 그런 藥이안이라 數百年의 歷史를 가지고잇는 皇漢藥草와 다시 十數種의 純漢藥을配合한 먹기쉬운湯藥이다. 이런病으로 苦痛하는분 飲食을먹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飲食物이 胃中에 滯하기쉽고 가슴이 빠근한感이나고, 가슴이 쓰리는것가치 위가앞으고신축이나오고, 惡臭가甚한 吐血을하고, 其反對로 病液의 血便이 나는苦痛과 不安은實際로胃를알어본사람이아니고는 알수업을것시다. 이難症에 永年間苦惱한분은 一次쓰루나煎을 써보시라, 임의實驗者에게서 果然 靈藥이라는評判을 듯고잇다. 더욱 詳細한것은 藥書로申込하면 文獻을보내드린다



藥價 十日分二圓五十錢 廿日分四圓五十錢 卅日分六圓五十錢 送料五十錢振替又는爲替로送金하면

東京市京橋區京橋二丁目三番地四號 東京漢方實驗所 電話京橋五六七四番 振替東京二九六四七番

本機는精密한設計임으로構造가堅固하며風力이猛烈하야永久使用에適當하며僅少한燃料로最大의能率을發揮할수잇습니다따라서價格은低廉합니다

은實로新時代末期의놀나운商品이며 本工場獨特한新案이오 徹底的으로 완전한家庭的重寶입니다 詳細는照會

京城青葉町一丁目一八〇 青葉式送風機製造發賣元 青葉鐵工所 電話(龍山)一〇一七八番 振替京城一〇三三八番

朝報案內

販賣員募集 中等校卒業程度者로外交販賣에經驗이 잇는二十歲以上(身元保證)▲月收入百圓無難▲志望者本人來談 京城府櫻井町上洞一五〇 新明洋行臨時營業所

恩給 長期低利로 如何한種類라도便宜周旋 借換도歡迎 訪問 京城府笠井町一五〇 朴商會

月收百圓 世界大流行特許手藝材料 小資本으로月收百圓 男女共同新職業 送料四錢切手封入 見本及商品進呈 照會하시면 里院東里 天光堂 特約店募集 振京 三三七六七

溪谷을 다름질치는 물결! 蒼蒼한樹木은바야흐로 가을빛이 깃드러 背地紅葉도 수를 노은作境! 이런곳이 서울장안에서 그다지 멀지안흔 城北洞을 말함이니 文明의雜音과 喧擾에 시달이는 우리都會人에게는 唯一한 慰安地이며 歡樂境이올시다.

今般 生覺한바가잇서서 좀더 새로운構想과 여러분의 期待가 비저내인 形式으로 이佳境에다가 料亭을 新設하고 斯界權威잇는料理人을 招聘하여 味覺을 刺戟식히는 이가에 마-치맛는 準備가 完成되여 九月二十六日부터 開店케 되엿사오니 하로에 疲勞를慰安식히기 爲하여 散策兼來亭하시여 愉快한하로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昭和十年九月 日

朝鮮料理

飲碧亭

市外崇仁面城北里一三三番地 電話光化門一八六番

皮膚病良藥 테-무水

皮膚病에는 단하나뿐인 テーム水

從來의皮膚病藥은 化粧水와大同小異하야 效力이 薄하며使用함에 不便한곳이거리는 膏藥用도잇고도쓰리기만하야 效果가잇는듯하나 疑心스러운것이만엇스니, 旣往의皮膚藥의 不滿足과 缺陷을補充한것이皮膚病良藥テーム水올시다 テーム水가左記皮膚諸症에對하야 適藥인것은 ●이미世上의定評잇소 때는 正히 皮膚病跳梁期, 이尤甚한때皮膚病良藥 テーム水의 常用을 推奬합니다

●말은옴 ●음부습진 ●무좀 ●옴 ●태독 ●부스럼 ●진물은데 ●부름 ●헌데 ●가려운데 ●버짐 ●癩風 ●疥癬 ●피풍 ●여드름 ●죽은깨 ●농가중 ●肛門지물은데 ●옷올는데 ●찰린데 ●벼륵 ●모기、깔다귀、빈대毒蟲의刺傷皮脂膿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 알푸지안코 눈에안띄고 냄새업시用法이 簡單하며 速히낫소

テーム水藥價(卄錢、卅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습)

購讀品만소必히テーム水라指名하시고사십시요

短篇小說

女子의마음 (4)

張德祚 作
安夕影 畫

아무 살님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가씨를 자주 차자댕기든 한 젊은 사나이의모양이 그렇게 머리 속에 떠올랐다.

홍수(洪水)이란 멋진 일홈을가진 고사나희는 어떤 극장에서 활동사진를 긴는사람이엇다. 얼골이 희고 이마가 준수한 홍은 향화보담 서너살이나 아래엇건만 유희에들때마다 다토어 덤비는 계집을 모다 물니치고 꼭 향화의방에서 남몰래엇다. 향화도 어데인지 수삽해하는 이 년석지를 누구보담도 조와하고 특별하는 한사람이엇다.

그러나 몃달동안의 계속적 수면부족으로 머리는 부어가지고 효험하엿스나 우연히 생각난 그 사나희의 모습을 노치기 아까웟든지 욕이를 재촉하여 몸수습을 마치엇다.

실로 오랜만에하는 외출이엇다.

향화는 멀지안은 그 극장까지 슬슬 걸어가고십헛스나 시키어 남지안튼듯하야 두사람이 정류장에서 전차에 올랏다.

『저놈들이 기어히 아가씨를 찻아 가는구면!』

『아이구 가엽서라』

하면 세우시는 구석마나님의 것체마 하면서 이것은 구경을 별노 보지못한듯한 욕이는 혼자 신이나서 열심히 화면을 바라보고 잇섯스나 향화는 밤름 쓸어질듯한몸을 의자등에 기대이고 억지로 정면에서 눈을 나리고 잇섯다.

『아즈머니 어데 편찬으세요』

하고 욕이가 처음으로 흥분에서 깨듯이 다아안즈며 뭇는다.

『아니야 압흐지안타』

향화는 이 어린처녀의 흥을 깨트리고 십지안엇다.

『괴로우시건 우리 돌아가십시다』

『괜찬아 마음 놋코 봐요』

욕은 근심스러운듯이 련해 이편을 힐끗그리면서도 다시 열심히 정면을 응시하기시작하엿다.

어둠속에 어렴풋이 들어나뵈는욕의 토실토실한 두빰과 풍부한머리털을 바라보며 향화는

전차속은 약간 붐비는 [illegible] 이 좋하여 그의 머리에 짝자이는 무거운 안개를 얼마간이나마 씻처내여 주는듯하엿다.

그는 욕새치마에 힌왕나적삼을 입고 차의 오르나림에도 특별히 주의하여 옛날의유녀(遊女)티가 남지안키를 원햇스나 암만해도 어색한점이 잇는것갓하여 마음속이 편치못하엿다.

극장은 벌서 시작되여잇섯다. 『코삭크 기병(騎兵)』이라는발성영화엿슴으로 중간주악도 쓸데업섯고 바라보고 찻아온 그 사람의 모양도 맛날수업섯다.

『패히 왓구나』

향화가 저도 몰으게 한숨을지으니

『아이구 아즈머니는 보시지도 안코 후회만 하세요』하고 게집애가 깔깔거렷다.

『네가 참 영문도 몰으면서웃는구나』

그도 짤아 웃기는 하엿스나맛남사람을 맛나지못하는 낙망은 일종터 피로를 가저왓슴인지머리속은 깨여진듯이 압핫다. 일요일도 제일도 아니엇슴으로낫시간의 입장자는 얼마되지 안앗다.

『오른후 룽랑』하며 화면의병정들이 달녀가고 달려오고 할때마다 향화는 눈압히 펑펑돌리며 정신이 아찔하엿다.

『아이 저를어째』

이 거칠 몸을 [illegible]하고만 그의과거 거름은 생활을 생각하엿다.

말할수업시 수척한몸에는 손꼿이 닷는데로 붉거진 뼈따귀가 앙상하게 만저지며 거칠대로거칠은피부는 모래알을 끼언진것가티 깔깔하엿다.

『몃해전만해도 이러지는 안엇건만』하고 그는 가슴이 메여올낫다.

『지르릉 지르릉』

벨이 놉히울드니 갑자기 전등이 확 켜젓다.

향화의 추혈된 눈에는 그 강렬한 불빗이 압호게 슴여들며 머리ㅅ속이 아찔하여지자 그는 좌석우에서 그만 정신을일코쓸어젓다

廿三日(月曜)

◇午後六時 兒童劇 베니쓰의商人 全一景(配役) 判事……朴慶完 副判事……朴京子 書記……方銀福 秘書……安玉煥 給仕……卿泰植 쇠일록……朴永浩 안토니오……趙炳吉 그의동무A……李垂元 同B……李泰亨 傍聽人A……李揆元 同B……朴建遠 出演 朝鮮兒童劇研究所 脚色監督 方銀福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高永翰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同八時 器樂 — 李王職雅樂部 — 一、管樂 [illegible] 二、細樂 水龍吟 李王職雅樂部 部員 指揮 雅樂師長 [illegible]
◇同八時二〇分(東) 빠이올린獨奏 一、롱 도…포—치로프作曲 二、니—근…브롯호作曲 三、西班牙舞曲…그라나도스作曲 四、부르레스케…스—크作曲 니뽈리이・시메트・볼레토 伴奏 리지아・샤피로
◇同八時五〇分 古談 林慶榮과許英 朴貫成

廿四日(火曜)

◇自午前一一時五〇分(東) 至午後六時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그戰
◇同六時 合唱 京城保育學校合唱隊 指揮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同七時三〇分 離別歌外 1、리별가 2、노들강변 3、사발가 4、늴리리야 5、밀양아리랑 6、어랑타령 林明月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八時 流行歌(레코—드演奏)
◇同八時一〇分(東)編唱 一、1、피에저우시는(니그로聖歌, 바레이編曲)2、설은『당고』(스키—파作曲柳園子譯詞) 3、숲속에서(로날드作曲) 二、1、富士山을 볼때엔(久保田宵二作詞橋本國彥作曲)2、신틀메(深田廣介作詞橋本國彥作曲)3、芭蕉(北原白秋作詞山田耕作)4、빗과함께(三木露風作詞山田耕作作曲)5、바다가갈메기게(日本古謠山田耕作編曲) 6、푸른周衣(西條八十作詞山田耕作作曲) 三、歌劇『五月의夜』 레비코의詠唱 림스키、콥사콥作曲 2、벼룩이노래 무솔그스끼作曲 堀內敬三譯詞
◇同八時四五分 漫談여섯개 藤原義江 1、生存競爭 2、名談 3、自力更生 4、기우러저가는집 5、게(蟹)장 6、英語博士 7、기ㅡㄴ담배ㅅ대 金永煥
◇同九時〇五分 赤壁歌外 1、赤壁歌 2、執杖歌 3、平壤歌 4、노래가락 金泰運 崔蓮香

曆 九月廿四日(火) 舊八月乙酉(大)廿七日 癸卯・金・尾・破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醫學

여명치가쓰려

問 이십일세중학생으로 만삼년전부터 소화불량증으로 지금까지 고민하오며 운동은 상당히하나 몸은점점쇠약하야집니다 일상식후 한두시간을 경과하면 냄새나난 까스가 나오며 명치밋이 쓰립니다 배가불너지고 터욱히하복부가 부르며 변비증이잇고 대변이 밤알만치 똥글똥글하게됩니다 선생님 경저적가정치료를하고저 하오니 치료기한과 복약가격을 가라처주십시요 (平壤吾倒生)

答 당신증세로보면 위궤양(胃潰瘍)인것갓습니다 음식은자극이업는것인죽 죽、우유、계란등을 자시고 마늘、고추、후추등은해롭습니다 음식에 특별히주의하시면서 좌기처방을 복용하시면삼사주일이면 경쾌되겟사오나 그렇치못하면 낫기가어렵고 약가난약방에 주절문의하야보십시요

一、重曹 一五、〇
炭酸카르시움 三〇、〇
炭酸마그네시움 三〇、〇
次炭酸蒼鉛 七、〇
右混合每食前三十分一茶匙屯服用

(大學病院外來內科 朴秉來)

淋疾

京都帝國大學附屬病院泌尿器科 醫學博士 片山義郎先生 推奬
元東京市電氣局病院泌尿器科醫長 醫學博士 横尾守中先生 推奬

文獻進呈 片山博士・横尾博士의實驗報告書無代進呈함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特許製法

バロール
바로루

本劑バロール는權威잇는銀オルガノゾル製劑이다

本劑バロール는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圓滿理學博士及小田切理學士의發明으로된 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을利用하야 同研究所內에서 그特許施設인 理化學的操作으로서, 兩先生監督下에 嚴密製造하고잇는것이다。

이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이란것은 金屬을 有機性分散媒, 特히 油脂와如한 物質中에 코로이드狀으로 分散식히는方法으로서, 이것은 아즉 歐米各國에잇서서도 生覺지도못하던것으로, 따라서 從來文獻에도업고, 全혀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獨特한 發明에依하야, 世界化學界에 자랑할수잇는 劃期的發明이라고 일칼르고잇다。그리하야 이것담으로昭和七年九月十五日帝國發明協會로부터 榮譽잇는發明賞을 下附한事實까지 고잇다。

如斯한權威잇는 製法에依하야서, 金屬銀을 純良白檀油中에 極微粒코로이드狀에다더구나 濃厚하게分散식힌데成功하고, 技에비로소 오래 待望되든銀의內服化를 達成식힌것으로서, 이것이 卽本劑バロール이다。그럼으로 バロール는 가든銀劑다고하야도 在來의局所劑와는 其作用을달이한獨特한 銀의內服新藥이라말할수가잇다。

銀의卓越한殺菌醫治効果를內服化식힌데成功한唯一한것이다!!

銀이強力的殺菌力을가진것은 일즉醫學界의認定한바로입의[illegible] 只이것만 服用하는境遇, 銀의吸收力이 遲鈍하여지고 또 尿中에銀이 排泄되지안는다함이 定說이나, 本劑는 金屬オルガノゾル임으로 그作用은全혀獨自的으로서 內服에依하여도 銀은 全體內에 吸收되야、迅速히 滲透作用을 계속하며、또銀本來의強力인 深達性殺菌消炎力는 內服에依하야서 少毫라도減少되지안코, 그우에 銀은 코로이드狀임으로、부라운運動의特殊活動에依하야 尿道의粘膜 無論粘膜의組織內、尿道部의淋巴腺、婦人의膣의組織內、子宮頸管內等모—든深部에直接殺菌作用을나타내고 이淋菌膿球의破壞殺滅은顯微鏡下에서볼수잇는것이다。이特徵은銀劑効果의內服化에成功한것이本劑特有의現象이다。더욱白檀油는그大部分이구리구론酸及硫酸과抱合되야서 無作用으로되고, 尿로나와서 膀胱하야 尿道의防腐消毒作用을하며 粘膜을刺戟안코, 炎症을 增加식히는 일이업시銀과互相作用을하야淋疾治療에의目的을 達할수잇는것이다。

副作用을내지안코더구나內服藥으로서의特性이著大하다!!

銀의局部治療劑는 炎症作用을일으키는 憾이잇다。그런데、本劑バロール는 內服藥임으로 그런害는업고、또 單一한 普通白檀油劑는 오래服用을계속한속 胃腸障害에 基因한泄瀉等을일으키며 顯著히藥効를 減殺식히는일이 잇는것도, 本劑는그使用된 白檀油가醫藥界에 가장 優良品으로서 認定되는 印度마이솔政廳特産인 白檀油며 또銀オルガノゾル라膠質임으로親和性이豊富하야 그런副作用을認定할수업스며、또膠質임으로서 服用이極히 容易함으로、精神的으로또時間的으로 不便、不快한늣김이안남으로、一般局所注入劑等과 가튼것에苦悶한 患者의苦惱를一掃식히고잇다。

淋疾患者에對한實驗成績

京都帝國大學醫學部皮膚泌尿器科教室醫學博士片山義郎先生은附屬大學病院에서 バロール를 患者에주워唯一한治療法으로하고、그治効를觀察하엿는대、淋濁한尿가 輕微로은 淸澄하게되며、顯微鏡으로 淋菌의消失되日數는 短縮되며 白檀油만으로써 治驗한經過에比하에 顯신効果를 増強식히고잇다。

特히 慢性患者에잇서서는 尿中의沈降性淋絲는 本劑의服用으로서 明確히減少되며尿의澄淋菌消失의 治療成績을어든것은本劑의 가장特異라고하는것이다。

全鮮有名藥店及데파—트藥品部에잇스나 類似品이만흐니 꼭バロール라指名하야 주시오。萬一品切되時는 直接發賣元에 請求, 振替貯金又는 代金引換으로 注文하시면 곳發送하여드린다 (前金注文은送料不要, 郵券代用함도可함)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十五錢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神田驛前電車通)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振替東京五四〇番・代表電話神田一一〇五番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二丁目
振替大阪七七九五番・電本局二三六九番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第一良藥 第一愛撫

이리하야만 愛育非常時를 突破하고 小兒諸症을 完全히 擊退식힐수잇다

救急에 ＝ 경련、기절、현기其他 밤중의 急病과 容態의急變에
治病에 ＝ 간기、보체고、열난때、위장장애、젓투정、록변、마마、홍진을 輕하게하기爲하야
保健에 ＝ 밤에 울고、안색납부고 여윈데、기타 선천적으로약한애

無代進呈 「育兒之友」 朝鮮日報名記入申込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德用包

本舖 大阪天滿 樋屋合資會社

10—C—4

秋だ！太れ！

몸 이부는데 赤玉이第一！

赤玉은葡萄糖・칼슘・鐵分等으로되여잇습니다 그것들은血이며肉이며骨格이며精力이됩니다、마시십시오！全身이힐신튼튼하야짐니다！

血과肉이되는？
天然甘味 藥用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토와인

只今大景品附賣出中！

赤玉ポートワイン으로 當籤 ●各等共히希望하시는品으로上

一等 一千口
婦人紋服地多物 一反宛
紫檀製茶櫃 一本宛
曲木應接セット(五点組) 一組宛
洋服タンス 一本宛

二等 一千口
小袖たんす 一棹宛
洋食器セット(五客分) 一組宛
正絹丸帶 一本宛
桐胴丸火鉢 一個宛

三等 二千口
婦人用旅行鞄 一個宛
子供用勉學机(椅子附) 一脚宛
水屋 一本宛
簿記台 一脚宛

四等 三千口
食卓(丸型) 一個宛
子供用寢台 一臺宛
衣桁 一本宛
婦人持洋傘(絹張晴雨兼用) 一本宛

五等 五万口
化粧鏡(婦人持・携帶用) 一個宛
メリヤス・シャツ 一枚宛

方法 赤玉포—도와인의 包紙(赤玉印)二枚와 口金掩(王冠이아니고, 王冠의우를掩한 錫製의것)의上部一個와를함께모아서, 래벨裏面에 住所姓名을 明記하야、買上店又는 大阪市東區住吉町壽屋サービス係로 付送하시압 抽籤券과藤澤樟腦를 送呈합니다 ●郵便은四錢마다參錢切手를貼附付送事

締切 아조今月末日限! 잇지마시고 只今곳 應募하야주시압!

應募者全部에 藤澤樟腦 五個一函包式 贈呈

九月十八日부터特別大公開!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현리—하사웨이氏監督作品!

벵가루의槍騎兵

게리쿠바— 후란쵸트돈 가이스탄딩그 大共演

深遠無限한映畵藝術의究極을突破 榮光不滅!! 死線에儼然한武人의姿態!! 이映畵는사나히가感泣할名篇이다

金剛키네마社超大作豪華版

靑春의十字路

豪勇 李源鎔、金蓮實主演

靑春의十字路! 題名부터岐路에헤매이며애태우는젊은이의懊惱를엿볼수잇스니秋夜長!!名畵의適切한鑑賞期다.

特別豫告 羅雲奎氏苦心大作 朝鮮名畵 影그림자 九月二十四日부터封切!

觀覽人다—산前後篇一時公開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九月十八日より 超特別大興行

秋愈々深まり映畫シーズン到る。巨彈に次ぐ巨彈!見よ浪花が放つ此の二大オールトーキ併立の超豪華番組!!

毎夜三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十二時 三時 七時

一、眼と耳の新聞(第二十六輯)
二、R、K、O特作日本語版 ▲カルネラ對ベア 肉彈十一回戰 オールトーキー
三、第一映畫社超特作 ▲まりやのお雪 原作 川口松太郎 脚色 高島達之助 監督 溝口健二 主演 山田五十鈴 夏川大二郎
▲かごや判官 脚色監督 冬島泰三 撮影 伊藤武男 主演 林長二郎 高田浩吉 其他オールスター

大岡政談中興趣の殺人事件を[illegible]林長二郎と引込み思案の高田浩吉とが協力しての手柄話キネマ旬報十五週年記念映畫!!

本町 浪花館

特製廿錢瓶
新發賣
ヘチマクリーム
헤치마크림
이것은, 당신들의要求에 꼭맛는
크림입니다 무슨理由일가요? 한번試用
하시면 그理由를 分明히 아실것입니다
▲살결에 살르르 녹어드는맛 이것은아마只今까지 이러케도 完全한 바늬싱크림은 업섯슬것입니다
▲皮膚의 新陳代謝를 旺盛히하야 늘 美와 젊은살을 길너줍니다
▲化粧밋테쓰시면 白粉의附着, 오래가는맛은 놀낼만큼 됩니다
70セン・50セン・30セン
ヘチマコロン本舖
東京 天野源七商店 日本橋

榮光의 그늘 "콩쿨" 入賞者述懷集

숨은功勞者는 普校時代恩師

指定難曲에는 戰戰햇다

提琴一等 文學準君 談

본사주최의콩쿠-르에서 어린 야심에불타는 수만은선수들사이에서 마침내영예의 일등상의 왕좌에까지 오른제금가(提琴家) 문학준(文學準)(二三)군은 전남령광군외양면준동리(全南靈光郡外…) … 연전(延專)문과상학부에 한적을두고잇는학생이다

그는 일즉이 목포(木浦)공립보통학교 삼년급때에 당시그학교 훈도이든 조병원(趙秉源)씨에게서 비로소 『바요린』을 배호기 시작하야 그뒤부터는 늘 열심히 계속해왓는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아프로 음악가로서 세상에 나설결심으로 그 가정에서는 자방에서 중등학교를 하라는것을 긔어히 우기고 상경하야 시내 제일고보(一高)에 드러갓다고한다

일고를 마치고는 음악학교를갈작정이엿스나 역시 가정의 형편으로 뜻을이루지못하고 연전에입학해 가지고는 홍란파(洪蘭坡) 채동선(蔡東鮮) 홍성유(洪性裕) 제씨의 지도아래서 계속하야『바요린』의 수업을하고 잇섯다고한다

그런데 그의오늘의 성공을가저오기까지에는 그그늘에는 아름다운 『사제(師弟)의인화』가 숨어잇스니 그의손을 잡아서 처음으로 활을 이끌게해준 보통학교의은사 조병원씨는 지금은 구례공립보통학교(求禮公普)교장으로잇는데 오늘까지도 문군의뒤에서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야 사제간에 흐르는 련면한 정의는 항상문군의장래를 고무격려하고 잇섯다는것이다. 일반악단은 오늘의 화제의문에오른 문군은 그의성공에대하야 아래와가티 말한다

다소 자신은 잇섯스나 지정곡목이 원악 어려운것이므로 혹은 실수하지안홀가해서 염려되엿습니다 또 얼마전까지도 참가할가 말가하고 망서리다가 기일이절박하여서야 참가하기로 결정하엿스므로 연습이 부족하야 걱정햇습니다 다행히 입상되엿슨 그동안의여러선생님의 조흔지도와 선배이겟스나특히 저의뒤에서 놉지도조와 격려를 아끼시지 안으신 은사조병원 선생이 시골서 이소식을 드르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실가하고 생각하면 눈물이나려옵니다 집에는 조부모와 량친과 동생들이 오늘까지는 음악에대한 리해가 깁프지아니하엿스나 역시 이소식을 듯고는 모다 기뻐해줄줄 밋습니다

한분어머님께 바치는이榮光

聲樂一等 高宗益君 談

본사가조선의악단의 비약을 위하야 제공한 금번의콩쿠-르대회를 대로하고 악단에화려한데뷰를 하게된 성악(聲樂)의 일등입상자 고종익(高宗益)(二〇)군은 현재 개성부고려정부산동(開城府高麗町扶山洞)에서 선친에 나는어머니를 모시고잇슴 히사는 귀여운독자인데 일즉이 송도고보(松高)를 졸업하고 동경(東京)에 건너가서 제국음악학원(帝國音樂學院)에서 삼년동안 성악을 수업하고는 동일인『알프렛·우랄』부인에게서개인교수도 밧다가 이해전에 집에도라와서 가사를 돌보면서도 성악의 연구만은 끈치지안코잇섯다고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본사 『콩쿠-르』개최의 예고를보고는 크게 분발하야 참가한것이라고한다 감격에넘치는 고군은아래와가티 감상을 이야기한다

별로히자신도업섯스나평상에그길을 거러오든터이라 발분하야 참가하엿습니다 오늘까지 저의화려하지못한음악수업을오직자애로써 참고기다려주시든 한분어머니에게바치는 작은선물이되도록 오늘의 영예가 제에게도라오게된것을 이우에업는 행운으로생각합니다 다 아프로 더욱이길에정진하야 여러분의기대에 어그러지지안토록 힘쓰려합니다

音樂學校出身들이 가장畏敬이엿다

聲樂二等 李仁範君 談

성악이등입상자 목사의아들 한사람인 연전(延專)문과상년생리인범(李仁範)(二二)군은 일즉이의주(義州)에서 목사(牧師)리학풍(李學風)씨를 아버지로하고 기독교도의 가정에 태여낫다고한다 아츰저녁으로 가족이모여부르는 우아한 찬미가소리는 어린리군의 장내의 음악가로서의 축복바든보람이엿슬것은 물론이다 평양숭실중학교(平壤崇實中學)자변급때부터 군은 성악에 뜻을두고연전에 와서는 학업의 여가에이길로 정진하기를 게을니하지안엇다고한다 특히군의 가정에서는 음악가에 대하야기피리해를가지고잇다 표하니 군의 금후의발전으로 크게하망이 빗날것을약속한다 군은 입상의 감상을아래와가치 이야기한다

이번콩쿠-르에는 음악학교 출신의 쟁쟁한 선배가 만히출전하리라 하야서 지자신이 업섯습니다 오직최선으로 다하겟다는 일념아래서 미숙함을보지안코 참가한것인데 다행히 입상의명예를가지게된것은한편으로 한업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람하기짝이업습니다 오늘의 이영광을 더욱뜻깁프게할것은 오로지 저의금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로부터 더욱더 소신에향하야 매진하렵니다

學藝

局外者로서 文壇에 對한 要望 ⑥

『文學上의 流派』를

金震韶

『當局者迷』라는말이 잇는것과갓치 무슨일이던지 그局面에 直接當事하는사람보담도 局外에 떠러저잇는사람이 좀 더冷靜할수는 잇슬것갓습니다.

그러나 일이 무슨 勝敗를 닷투거나 是非를 논하는 **場面** 갓흐면 혹모르는것이지마는 文壇人의입으로 들려진『文壇의沈滯』이니 低調』이니하는 소리가 들니지 오래인 이제와서 局外者인 나에게까지 文壇에對한 要望을쓰라는것은 이것은 아모리생각해보아도 當局者들이 한것을 組聽明하는程度의 戲問이라는것보다 事態는 훨신 더深刻한 地境에 이르지 안엇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시말하면 文壇人自身으로는 現下 朝鮮文壇의 沈滯와低調를 救濟할수업는 不治의地境에 이르지안엇는가 하는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무슨일이든지 結局일요 그當事者가 하는것인즉 現下의 朝鮮文壇의 그沈滯한바가 아모리 不治의地境에 이르럿다고하드래도 結局 어文壇을 再建할사람은 朝鮮文壇의 現役軍이나 新進인 文壇人이지 決코 文壇人이아닌 우리네와가튼 局外者의손에서 遂行되지는 안흘것입니다.

그럼으로 問題의 **核心**이 文壇에잇는以上 結局 文壇人은 文壇人이고 局外者는 局外者라는 職責의 限界分定을 어데까지든지 똑똑이하지아니하면 안되겟습니다.

그러나 旣往이면 局外者인 나에게까지 意見을 무르신以上 별로 이럿다할만한 定見은업드래도 우선 생각나는바를 簡略하게 敍述하는것이 利權을 玩問빌할가하는것입니다.

文學制作은 多分의 技術的要素가 드러잇는 것이만큼 그것은 專門家에 미룬다고 하드래도 文學이 다른藝術形式에 比해서 더만히 局外者의 容喙할餘地를 가젓다는것은 文學의內容이라고할까 何如間 汎博하게 말해서 文藝思潮라고 하는것을 無視할수 업는것인때문이 아닐까합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見地에서나 亦是 멧마듸하고 십흔것은 대체로 우리文壇에는 한개의 또렷한 文藝思潮라고 할만한것이 업지안은가 합니다. 따라서 어느나라 **文壇**에比해서도 우리文壇처럼 文學上流派라고하는것이 업는文壇은 업슬것입니다.

이文學上流派라는말은 잘못해서 一般의誤解를살가 두려워함으로 다시 敷衍해말하면, 文壇의派閥이라는것과는 다른것입니다 다시말하면 朝鮮文壇에는海外文學派나 九人會니하는것이잇다고 할뜨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그룹들은 文學上의 流派이라고 볼수는 업는듯합니다 웨그러냐하면 流派라고하면 그것은 人間的集團體로 말하는것이아니고 적어도 한개의 文學的主張-다시말하면 한개의 뚜렷한 文藝思潮를 對表하는集團이 아니여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다아는바와가치 海外文學派나 九人會는 이러한 文學的主張을 하나도 實行한일이업섯고 또한 實踐한바도 업섯습니다.

그러면 한개의 文藝思潮란 엇더케나타나느냐하면 그것은 곳 時代思潮의 文學的描寫일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본다면 現下 朝鮮文壇에 한개의 文藝思潮가 이러타할만한것이업다는것은 現下의 文壇人에게는 엄마나 時代的精神이 缺乏되엿는가하는 結論이 내려질수밧게업슬것입니다.

그럼으로 文壇人의 時代精神이 缺乏되엿다는것이 가장 感性的으로나타난 現象은 文壇에 잇서서 批評의 沈滯를 부르짓든것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時代的精神이란것은 批評의精神이라는말과 同一한것이며 따라서 文壇에 한개의 文藝思潮가 樹立되자면 文壇人의 不絶한 批評의精神이 그時代의 動向을 銳敏하게 觀察하고 攝取하는데서만 可能한때문이엽니다.

그럼으로 내가 現下의 文壇人에게 要求하는 文學上流派는 決코 人的集團인 派閥을謂하는것이아니고 우에서 말한바와갓흔 文學上流派를 말하는것입니다.

勿論 우리는 傍觀해보앗지만은 이때까지 우리文壇에도 여러가지問題가 通過한것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充分히 咀嚼되지못하고 지나가 버린것은 매우遺憾이아닌가합니다.

近畿山岳史話 仁旺山 (5)

王宮佛寺및偉人舊基

湖岩

仁王山의 史蹟을 말할때 겨기잇는 宮터 절터와 또는 碑碣 李恒福가튼 偉人의 집터를 말하지 아니할수업다 國初에 無學大師가 漢陽의터를 잡을새 仁王山으로 主山을 삼고

北岳과 南山으로 左右龍虎를 삼으려고 하엿다. 이때 鄭道傳이 反對하기를 예로부터 帝王은 모다 南面의治는 잇섯스나 東向한것은 듯지못햇나이다. 無學이 갈오되 내말대로 하지안흐면 二百年만에 내말을 생각하게 되리라 山水秘記에 일럿스되國都를 定할때 중의 말대로 좃츠면 얼마만큼 國祚가 延長될 希望이 잇스나 만일鄭姓을 가진사람이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是非를 걸게될때는 五世가 되지못해서 革命이 일어나고 二百年만에 큰亂離가 날터이니 삼가하라고 하엿다. 이山水

秘記는 新羅名僧義相의 지은風水說로 八百年뒤에 될일을 豫言한것인데 여기일은바 중이란 無學을 가르침이오 鄭姓을 가진 사람이란 鄭道傳을 가르친이며 革命은 [illegible]를 가르친것이오 큰亂離는 壬辰役을 가르친이다 勿論 이것이 荒誕한 傳說로 그대로 미들수는업스되 仁王山이 京城諸山가운데서 녯날부터 얼마나 重視되엿슴을 알것이 아닌가 이러케 傳統的으로 崇仰을 바더오는名山임으로 光海때에 이르러는 一轉하야 그山아래王氣가 잇다는風說까지 생겨 이王氣를 눌으려고 光海는 仁王山아래 慶熙 慶德 및慈壽 三宮을 지엇든데 仁祖反正後에 慶熙以外의 兩宮은 모다 헐어 버렷거니와

慶熙宮은 俗稱 夜照峴大闕로 이附近에는일즉 高麗때부터 離宮가튼것이 잇든 模樣인바 夜照峴大闕은 近年까지 남아잇다가 오늘날은그터이 아주 京城中學校에 드러가고 말앗스며 慈壽宮터는 오늘날 順化病院 一帶이듯 하나 慶德宮만은 어데 잇섯든지 未詳하며 慶은 社稷近傍이 아닌가한다 仁王山은 王宮만 아니라 佛寺도 잇섯다 지금부터 四百餘年前에 編成된 朝鮮統一地誌인輿地勝覽을 보면 仁王山에는 仁王寺를 비롯하야 內佛堂 金剛窟 福世庵이 잇섯스며 仁王寺는 高麗때 이미잇든 절인듯하며 或은 仁王山이라고 함이어절로해서 생긴名稱이 아닌지도 모르겟고 內佛堂은 世宗때에 지은것갓고 金剛窟은 그位置를 알수업스나 或은

오늘날 有名한 藥泉이잇는 七星殿가 넘가 福世菴은 世祖때 지엿스나 그位置는 推定하기 어렵다 松石園後谷에도 절터 가튼것이 잇는잇스되 어떤절터인지 그이름조차 傳하지아니한다 崔淑精의 仁王寺詩에 『一曲林泉勝, 千木滴』의句를 보면 仁王山에 樹木이만튼것을 짐작할것이며 또俗談에 흔히 稱하는 仁王山호랑이라함은 同山의 虎狼이 바위가튼 그奇險과 對照할때 그럴듯이 잇슬것을 끄덕이게 니와 仁王山의 樹林은 城內론 幾多의殘谷을 열엇스나 城外론 선바위엇은 꼴작이와 暴近에 집만이지은 꼴작이와 또는銀杏나무잇는 봄에는 紅桃의꼬치 피기로有名한

紅把洞 이엿지마는 다발떡한 조그만모곳이라 景勝은 볼것이 업스되 여기 注意하여야 할것은 紅把洞 十四番地 희나무(槐)백외올近處는 壬辰亂때 朝鮮軍의都元帥로 幸州싸움에 大勝하야 忠武公李舜臣과 竝稱하든 宣武功臣 權慄의 舊基이다 權慄은無子함으로 이家垈가 그사위鰲城府院君 李恒福의 所有로 도라가게되엇다 鰲城은 이紅把洞집에 이룰넘어와 新宮洞八八番地에 살앗는데 이집에는 宣祖께서 親臨하셧스며 또 御賜松까지 잇섯든바 最近에는 어떠케 變햇는지 모르겟다 新宮洞이라고 稱한것도 鰲城의 別號에서 생겨난것은 누구나 다 아는일이지만 仁王山안팍기에 當時文武를 代表한兩偉人이 살든舊基가 잇는것은 仁王山의 이름을 일층더 빗내게한다

藝苑拾遺 (中)

李有浩

다시 『괴-테』에對한 그의不-滿과 失望을 雄辯하는 다음의 어떤女性에게한 書信의 內容을 보면 우리들은 宮廷人으로서의 『괴-테』와 藝術家로서의 베-트벤의人間的對蹠를 엿볼수잇다.

『諸侯들은 大學敎授와 樞密顧問官을 製造할수이스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勳爵을줄수도잇스리라 그러나 偉大한人間을 맨들어낼수는업다 똥파리들을 超越한精神的人間을 그들은 오히려 畏敬함이잇어야하리라 나와 『괴-태』의會合으로써 그들諸侯들은 일카루는"偉大"의眞意를 認知하지안흐면안되리라 어적게 나와괴-테는 散步에서돌어오는길에 大公家族에 相逢하엿다. 멀니 그들을본 괴-테는 彼然히 나의끼팔을뻬고 길엽때기에꼿꼿히 서버렷다. 나는이런때에 萬然히 나의팔을 그에게 빼아서보앗쓰나 그들기엽때기붓터 한거름도 움즉일수는업엇다. 나는帽子를쓰고 두팔을끼채行列의中央을 通過하엿다 諸侯와 侍從들은도파리를은 나를마으려 하엿스나 그것은 나에게對하여 無効이엿다.(中略) 다는늘날마용으로『괴-테』가엇던 징을하는가하고 뒤를아보앗다 그는脫帽한채로 허리를굽히리고 잇섯다......(略)』

當時의權威詩人들 『하이네』, 『크라이쓰트』그럴딸철등이反感이 한것가티이偉大한 俗人』한데 모여다는것은 그의言語人的官僚精神과 八方美人的俗物에依한 折衷의『파라독쓰』나 아닐가? 偏狹이 자랑삼는 어두운 人이 交際를 이로써긋게젓는것은 피히 짐작할수잇다 其後十一年間 偏屈과 貧困과 싸우며 藝術의險路를 것든『베-토-벤』의 剛口之旅을 大公에게 叛騷하엿슬때『괴-테』는 返信도차하지 안헛다고한다

人間『괴-테』의 偏狹함이여! 天才의 藝術家와 生活問題의永遠의 不和!--그것이 바로잡히지못한 時代엔 떠코다는것이 또한 새삼스러히 늣겨진다.

여긔하나 滋味잇는것은 『괴-테』에對한 『하이네』의 感情이다『나포레옹』에 對한 『하이네』의 感情이 溢溢의 銳敏으로부터 漸次否定的批判으로 推移한데 反하여 『괴-테』에 對한 그것은 反感的批判으로부터 漸次讚仰의感情으로 옴겨갓다는것이다 그러나『하이네』의 『괴-테』에 對한 讚仰은 個於目에와 이偉大한 先輩와의 對面的 本質을 正確하음 가르마지못하엿다는點에 우리들은 모든것을 너어울수잇는度量을가젓다는드시 안저모든進步的時代이땅의 新聞大衆에 멀리이詩人에 미지못할 本質的衆을본다 『괴-테』와『쉐러』比較하여『괴-테』의文學은『쉐러-』의文學과如히 行動을將來치못하는故로 고재다라고 말하고것뜩하면 『世界를妖이 눈歌曲』은 『쉐러-』의편에 들고괴-테를 『貴族의從僕』이라하며 排斥하엿다그러나 엇사리比較해엇떠한 이말에코우습하기쉐에 괴-테-의 利己主義者生存에 너어들必要가잇스리다. 드듸여『괴-테』한데 讚揚밧는것은 凡斷의 否定的으로써 遺棄되는것을 意味한다라고까지 쓰이사랑스러운 詩人이 一九二四年가을에『하-쓰』紀行時『괴-테』를 訪問하엿슬때 그의偉大함에 억매혀 버렷다는 挿話는 너무나 正直한詩人의피를 말하는것이다.

秋燈讀書

自己問題와讀書

朴鍾鴻

아직도 別로 一定한 讀書方法을 가지지못하얏습니다. 讀書方法이라기보다도 自己의 問題의 方向을 조금이라도 明白히 把握하기에 留意하고잇습니다. 自己의 問題에對한 情熱이 놉하질때 自然히 그에 相應한 讀書方法을 가지게되는것가타요. 或은 精讀, 或은 多讀, 줄을 그어보기도하고, 要點을 적어보기도하지오. 내가 나의 問題解決의 端緒라도 차자내일수업슬가하야 애를쓰면 쓸사록 어서 읽고십다는 興味와아울러 讀書의 効果도 생기는것갓습니다.

다른사람의게 勸하고십다고까지 생각되는冊도 別로 읽지못하얏습니다. 『한스 후라이야』의 『社會學序論』이 그中엇든바잇섯다고할까요. 簡明한 敍述가운대에서나마 새롭은 領域을 開拓하야보려는 著者의 意圖가 나타나잇다고 생각합니다.

秋思 (詩)

金哲洙

반디불

아름다웟든
어느 젊은
敗者의 靈魂
무덤가에 마른
풀닙에 숨어
깜박 깜박
삶의 鄉愁를 그리다

원두막

七八月에 차저오든
손 들을 그리며
언덕에 비스듬이
深恨을 안고 누은
病든 원두막
마른 네 다리우에
버레의 우름이 길다

海外片信

『나폴레옹』一世의 親筆書簡

【하리코프發聯合電信】『나폴레옹』皇帝의書簡이 또一通發表되엿다. 『하리코프』中央科學圖書館에서 文獻整理中偶然히 發見된것으로서 金緣으로鷲紋을너흔 書簡에쓰인것이다. 受信人은 『오른란드』公『쏘-쉐』이고 差出場所는『드레스덴』으로서『룩센』(삭소니-)의戰에 露普聯合軍을擊破한 五週間後에 『나폴레옹』皇帝親히펜을 잡어쓴것이다. 內容은 『오른란드』公『쏘-쉐』殿 余는 卽時『프로시아』王國에 侵入하며 貴卿에게『프로시아』의 政治를 委任할(中略)寸刻도 猶豫말고 獨逸語를 말하는者 三名을 帶同하고 卽刻『드레스덴』으로 行하라 但余의 信賴하기에足한者를 選擇할것 三名以上은 斷然不可하다.(後略)

古代語의 寫本發見

【아스트라칸發聯合電信】最近 『사베-르』科學與會의 主催로 『볼가』河流域地方의 文物研究隊가 派遣되엿스나 그結果, 『카스피』海北西의『아스트라칸』에서 古代語로쓰인 珍寫本이 二百冊이나 發見되엿다. 二百冊中『아라삐아』語, 波斯語, 土耳其語 等으로 씨여진 寫本이 大多數를占하고 어느것이나 考古學上으로보아 非常히 珍貴한 硏究資料이라고 한다. 그中一五四二年에 씨여진 土耳其語 數學書一冊과 一五八五年에 씨여진『아라삐아』語의 論理에 關한 文獻은 가장興味를 끄을고 잇는데 此等珍本은 各各 專門學者의 손에 委託되여 今後의 硏究에 供하기로하엿다.

『크라카토아』火山島에 漂流一個月의大記錄

【바타비아發聯合電信】『자바와 『스마트라』사이에잇는『크라카토아』島는 數十年來무서운 爆發을繼續하고잇서 有名한 活火山島인데 最近이섬에 漂着햇다가 살아돌아온 幸運의士人이 잇다 그들一行二十人은 水牛十一頭山羊四十一頭를 큰배에 滿載하고 五月末께자바를 出帆하야『스마트라』로向하얏다 航行을한지八時間에 突然 하늘이 흐리어지더니 熱帶特有의 용오리가 일어나며 배가그속에 쌀리어들어가서 고만顚覆되고말앗다 乘組員三人과 動物은 모다 溺死해버리엇는데 남은 十七人은 배조각을 붓들고 漂流해다니다가 『크라카토아』島에 다헛다 이섬은 一八八三年 大噴火때三萬六千人의 島民을 全滅시키어버린後 全然無人島로 먹을것업서 죽을고생을 하면서 엇지엇지 무日을 지내엇다 그런中 어느날밤에 怪然한 爆音에 놀래어 일어나족 黑雲이 하날을 덥고 불근불꼿이 번쩍이는同時 뜨거운 재가容赦업시쏘다저 나려오는것이다. 勿論또다시 爆發은 시작되엿다. 이러케 하다가는 몰사죽엄이라고 모도들 떨고잇섯다. 그래서 언덕우에서 대롱떼기가지고 조그만 떼를맨드러 三人의決死隊가 라고곳 出發하엿다. 그三人은 卄四時間의 懸命의奮鬪를한結果 드듸어 汽船에救助되얏는데 火山島에남어잇는 사람들을 救出코자 곳 救助船을 出動시키엇스나 벌서 살아잇는사람은 하나도업서졋슬지 모른다고推測된다

黑風 【138】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해후(邂逅) 21

『그러면 내기는 지실것이고 나의 사랑을 밧기는 실타는 말슴과 다름이 업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말슴과 가티 내기를 하면 선생님이 반듯이 지실것입니다 아모리 하야도 피스톨 사건이 연애관계 인것을 발견하실수는 업스실것 이니까요 그러라면 선생님과 저와의 사랑이란것은 끈허지고 말것이 아니야요 그러니까 내기를 그러케 하기는 실혀요』

『나는 아모리 생각하야도 내기에 질것 갓지는 아니합니다 내기를 그러케 하고십흔 생각은 업는데요』

왕한은 점점 창순의 뜻하지 아니한곳을 엄습하얏다

창순은 왕한이가 너무도 자기를 밋지 아니하고 추궁(追窮)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조금 곤난하얏다 그리하야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랴는것을 내기로써 책임을 회피(回避)하시라는것 갓습니다』

하는 말소리는 조금 깔깔한듯 하얏다

『가령 내가 창순씨를 사랑하기위하야 한때의 수단으로피스톨을 노앗다면 그것을 연애관계라고 하야도 관계가업슬까요』

하는 왕한의 뜻밧게 말에창순은 홀연히 무엇을 깨다른듯하다가 문득 의심이 다시 김퍼젓다

『무슨 말슴인지 모르겟습니다마는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기 위하야 수단으로 하신일이라면 저의 목숨이 끈허젓다 할지라도 천하 만고에쌍이 업는 연애관계라고 하겟습니다』

조금 주저하다가 이러케 말하는 창순은 용기를 내여서결심한듯한 기색이 떠도랏다

『창순씨 용서하서요 그것은나의 한일입니다 나는 창순씨를 사랑하기 위하야 부득이한 수단으로 한 일입니다』

하는 왕한은 계속하야 연극장에서 보고서 뒤를 따르랴고하다가 일이 급하게 되얏스므로 창순의 종적을 알고저하는 부득이한 수단으로 그리한것을 자세히 말하고 미안한뜻을 거듭거듭 말하얏다

『아-선생님 감격합니다 선생님이 배에서 저를 구원하기 위하야 생명을 도라보지 아니하시고 모험행동을 하신것도 말로 형용할수가 업습만치 감사하지마는 저에게 피스톨을 노흐신것은 더욱 감사합니다 배에서 하신일은 무론 저를 위하야 하셧지마는 그것은 선생님의 타고나신 의협심이 반이나 석기엇슬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에서는 제가 아니고 다른녀자가 해적에게 그러한일을 당하얏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스스로 의협심을 익이지 못하야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자를 구원하랴고 하셧슬는지도 모르는것 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사람이 모아잇는 대도상에서 사람을 향하야 피스톨을 노흔것은 적지아니한 모험입니다 그러한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저의 자동차에 피스톨을 노흐신것은 의협심이니 아니니 하는 선생님의 타고나신 천품(天稟)과는아모러한 관계가 업는것이오 단순히 저를 사랑하시기 위한 순정(純情)에서 나오신 모험적 행동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천재(千載)의 뒤에 지긔(知己)의 사람이 하나만잇슬것 갓흐면 죽어도 한이 업다고 하얏습니다 저는 과연 선생님의 그러한 사랑을 바들만한 자격이 잇는지요 그러라면 눈물을 흘려서 감격한 뜻을 표하는외에 다른도리가 업습니다』

처음에는 늣나는듯 하다가 나종에는 더운눈물을 흘리는 창순은 목이 메일만치 감격한 소리로 이러케 말하얏다

『더욱 미안합니다 아모리 부득이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녀자에게 대하야 피스톨을 노흔것은 적지아니한 허물입니다 창순씨가 얼마나 놀냇스며 얼마나 불쾌하얏겟습니까 나로서는 견댈수업는 미안입니다 그것을 용서하실뿐아니라 감격한뜻을 표하시는것은도로혀 나에게 쭐기어려운후회를 주시는것입니다』

하는 왕한은 얼골빗슬 고처서 진정으로 미안한뜻을 표하얏다

신경통 류마지스

고통이심할때 응급치료가되나니 앏은곳·부은곳·쑤시는곳·멍든곳·피곤한곳에 조곰발느면 즉접 환부에 침투되야서 병근원의뿌리를곳빼버림으로써 무슨약보다도속히낫는약입니다

內服藥처럼인이백이거나 부작용의염여가젼연업시 직접환부에 작용하게됨으로속처됩니다

皮膚表面에 아모고장이업고 근육심부와관절이 쑤시고 생기며 쉽니고압픈 神經痛 류-마지스 관절염의疼痛에는 여러가지專門的수단을 쓰기젼에 먼저「사로메지-루」를발느시면 그럿케심하든고통이 곳개이고 밤에 잠을잘주무시게됨니다。

피곤함을속히회복식힘

職務過勞나運動競技 혹은먼길을걸으신뒤에 몸이 피곤하게된근육에「사로메지-루」를 발느시면 쉬이는동안 또는 주무시는동안에 모든炎症과鬱血을삭게하고 피곤함을一掃식혀서 원기잇게 몸을회복식혀줌니다。

家庭應急常備藥

어느가졍에도 한개식준비하시사 무슨몸변사가난때 젼문가의손을빌때까지에 응급치료에사용하여주시기바람니다。즉 두통…현기증…치통…견비증…담결니는데…허리와다리압픈데…펑지낙상…멍이든곳이나쎄인곳에 감기에걸녀목이압플때…피부가가려운병에…빈대 모기 벼록의예방에 사용하시면 무슨약보다도 적확한효과가잇습니다。

陸軍承認藥

十五錢 五十錢 一圓 二圓五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發賣元 田邊元三郎商店

サロメチール

貧民逐出의怪手段
井戶를메워버려
都市經營株式會社의新戰術
新堂里土幕紛糾後聞

【京南】 시외한지면신당리도시경영주식회사 소유지의 토막민의 백호에대한 철거문제는 아즉까지도 지주측과주민 사이에 승강중인데 지난십이일 소활동대문서신당리 주재소장 신곡(神谷)부장의 알선으로 주민들을 시외한지면 사근리(沙斤里)에다가 매호당열평식 건축지를주기로하고 전세든사람마는 다섯평식을 주기로 쌍방의 해결이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즉시 선발대로 이십여호가이전하야 정해준긔지에다가 토막을건축하려하엿든바 이곳은산등지의 분묘된개천섭이여서 밋호로부터습기가처오를뿐아니라또여름장림간(長霖期)에는 그근처개울물이 넘처흘러오며 한강의조그만홍수라도 즉시침수하는곳으로 토막이나마도 짓고사는빈민자들을 겨우이런불안한곳을 정해주다고 그들은 다시긔어들어서도다시 지주측과의 승강을하게되엿다 그런데 지주측에서는 먼저허러간곳에 다시토막을짓지못하게 하너라고 즉시공사를시작하야 그들은 또다시 짓지도못하고 그근처에서 그냥로숙(露宿)을하고 지내는데 또 요사이는 동대문서에까지도 매일절거를 하라는 독촉을 하고잇서서 불안한데다가 지난십칠일에는 지주측에서 공사를한다고 이백여명다먹는 단한곳의우물까지도 메구어버리여 또한공포수고갈로더욱불안에 싸여잇다고한다

府編入압두고
東南部發展會組織
關係洞里有志의發起로

【京南】 남산(南山)을 중앙으로한동남부(東南部)방면의 발전을촉진코저 그곳유지들로서발전조성회(發展助成會)를 조직하엿다는데 회명은 남산동남부방면발전조성회(南山東南部方面發展助成會)라칭하고 위선해지방에 미비한 교육위생 산업긔관등의사회시설을 촉진건설할목적이라하며 림시사무소는 시내 삼판통(三坂通)사십사번지 조선농림회사(朝鮮農林會社)안에 두고 발긔인들은 다음제씨라한다

◇發起人 成俊德 金炳默 李鴻淳 白斗鉉 朴敎陽 趙南灼 朴元信 金鐸濟 朴基煥 鈴木益太郞 原四郞 佐佐木勘一 梶川種吉 菊田久男

農林校期成會에
一金千圓을喜捨
甲山郡金七星氏壯擧

【惠山】 함남갑산군읍내에 거주하며 상업을경영하야 남부럽지안케사는 고전봉술에사는 평소에동정심이만하서 그지방에 가장조흔평판을 바다오든바 얼마전에작고하고 그아우되는 전칠성(全七星)씨가 그형의뜻을밧드러 얼마전에 조직된혜산 삼수갑산삼군련합농림학교설치긔성회에 일금천원을 긔부하얏다는데 동회갑부등을롤론 지방인사의 칭찬이자자하다고한다

農事改良融資
郡割當額決定

【釜山】 경상남도에서는 금년도추긔 농사개량저리 자금의각군별 할당액을 지난이십일에 좌와 여히 결정하얏다 한다

東萊九三〇〇圓 蔚山九一〇〇圓 梁山八三〇〇圓 密陽一一〇〇〇圓 咸安三五〇〇圓 昌原八八〇〇圓 昌原一三〇〇〇圓 咸陽六五〇〇圓 四三圓 統營八二六〇圓 南海一五〇〇圓 泗川三七〇〇圓 陝川一〇〇〇圓 山淸一〇〇〇圓 居昌一〇〇〇圓 合計 九六〇〇三圓

今西校移轉反對

【山淸】 경남 산청군 금서공립보통학교(今西普校)교사는 대정십년에 건축된것으로 건물주요부분이 부파되여 위험한상태에잇스므로 금년도에 개축하기로 결정되엿는바 동면남부량파 주민들은 이긔회를 리용하야 각기자의 편리한곳으로 이전식히려고 맹렬한쟁탈전을 계속하고잇다는대 현재학교소재지(特里)는 소위남부에 속한곳일뿐아니라 일도 가장갓가운곳일뿐아니라 부부에서는 면열교제를 목표로한 오늘에잇서서 면전체의 지리상관계로보와 현소재지가 가장적당한곳인데 이전할리유가 업다고 특히 주민은 군당국에 반대진정을하엿다고한다

村婦女를誘引
賣渡中에被逮

【元山】 촌부녀를 감언리설로 꼬여 음식점에팔고저하다가 부잡힌 삼인당이잇다=지난이십일 정오경 함남안변(安邊)에서 무단히출가하야 원산을 두경하고 원산역에 도착한 리선녀(李善女)(二〇)는 동역루에서 만나한녀자를 물음색하고잇던 일정한주소가업는 김병선(金秉善)(三二)동성원봉(咸元康)(三三)등 한정선(韓正善)(三三)등 사인에게 발견되여 그들의 회사원에게 출가시켜주마는 감언리설에 속아 그들을 따라서 역전모 음식점에 일으럿다고 이려케 꾀여온 전긔한정선은 선녀와 정교를 강요하고 그를 모 음식점에 작부로 팔고저 하다가 그만 목적을 달치못하고 순시중의 원산서원에게 발견되여 체포된것이라는데 그들 삼명은 방금 원산서에 유치하고 엄중 취조중이라고한다

立石幼稚園
備品同情深至

【立石】 림석유치원(立石幼稚園)은 지난오월에 개원한 이래동유치원의 설비품일체를 지방유지들로 부터동정이 답지하여실로동유치원은 창립된이래 아직 시일이짜름에 불구하고 현재의 원아는 팔십여명이나되여 보육실은 초만원상태로 흥흥이발전되고잇다함은 긔보한바이니와요사이 또한아래와가튼 만흔긔증이잇섯다한다

▲裵基烈 黃道吉 洪倫道 各恩物壹個 ▲李承炫 恩物藏三個 ▲鄭春吉 恩物藏壹個 椅子二個

虛僞電報打電
五百圓을詐取
犯人兩名逮捕

【春川】 강원도린제군서화면서화리(麟蹄郡瑞和面瑞和里)목상(木商)우종하(禹鍾夏)는 지난 팔월중에 떼(筏木)를경성 뚝섬(纛島)에서는 객주로홍필(盧弼)에게 의탁하고 대금 팔백원중삼백원을 수취하고 잔금오백원은 추후린제로 송금하라는 부탁을 하고 춘천읍에체재하던바 이내용을 탐지한 린제군서화리(瑞和里)에 거주하는 김기춘(金基春)(三六)과 동리 추부철(秋富七)(二?)이란 두사람을 공모하야 지난 팔월 이십구일에 뚝섬에 사는 전기 로홍필에게 우종하의 명의로 벌목(伐木)대금 륙백원을 전송하라는 전보를 하엿다 그리하야 로씨는 대금잔액 오백원만을 즉시 전부면국으로 전송하얏던바 원산시일 오전에 전긔 두사람은 그돈을 차저가지고 분배하얏는데 구월륙일에야 우종하가 이사실을 알고 경찰에 의뢰하얏섯는데 김기춘은 함남장진군하갈(長津郡下碣)에서 지난 십륙일에 체포되고 추부철은 린제군하에서 체포되여 이래 춘천서에서 취조중인데 불일 송국할 예정이라한다

三湖濟宜學院에
金三百圓喜捨
李舜鳳氏特志

【三湖】 함남삼호에잇는 삼호제선학원(三湖濟宜學院)은 삼호의유일한 무산아동교육긔관으로서 십삼년이란 긴역사를가지고 잇스나 그동안여러가지로 경영곤난에빠저잇는바 사변전부터 지방유지들이 리사회를조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오든결과 겨우 난경을돌파하여오나 교사의협착으로 지원아동도 심히제한될뿐아니라 현재에도 비위생적이여서 간부들은 대책강구에 부심하여오든바 지난이십일 본학원리사 리순봉(李舜鳳)씨는 자진하야 금삼백원을 회사하면서 이돈을 회원신축긔금으로 써달나고 하엿다는데 일반은 그의 독지에대하야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新秋漫談大會
大盛況裡閉幕

【京南】 왕십리유치원(往十里幼稚園)주최와 본사경남지국후원하에 열린 신추야담대회는 이십일밤 여덜시에 왕십리보통학교강당에서 개최되여 대성황을일우엇섯는데 당야의 자진긔부금은 백여원이 넘엇든바 외연자는 다음 제씨라한다

豐球殷雲商會金一封 金甲東三圓 李洙鎭十圓 舊友會金一封 崔美俊五圓 金東旭三圓 李昌根五圓 嚴柱完三圓

密陽邑에서
美華刺繡講習
本報支局後援

【密陽】 가정부인의 수예에대한 리해와 미적관념을 향상시키기 위하야 경남밀양읍 밀성유치원 자모회(密城幼稚園慈母會)에서는 본보밀양지국후원하에 오는 구월이십삼일부터 일주일간 미화자수강습회(美華刺繡講習會)를개최하기로되엿는데 강사는 미화자수게에 가장조예(造詣)가깁흔 신동미화자수보급회대전연구소 강사 김?규(金?圭)씨를 초빙하엿스며 회비는 일원이고 장소는 내이동(內二洞)서한공회당(西○公會堂)이라는바 일반가정부인의 다수참가를 바란다고한다

地方人事

▲金炳錫氏(義城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安溪支局來訪
▲東藤武雄氏(慶尙北道產業技手)榮州郡新任人事次 本報榮州支局來訪
▲原田啓藏氏(榮州郡產業技手)漆谷郡榮轉人事次本報榮州支局來訪
▲孔洪源氏(郡屬)蔚山郡屬榮轉人事次本報金海支局來訪
▲李龍佑氏(郡屬) 同上
▲全景錫氏(本報榮州支局顧問)市內樂園洞沈相天醫院入院治療中二三日 退院歸鄕

스포ー츠界豪華版
關西綜合體育大會
本社平壤支局의後援으로
―來十月五日에擧行―

【平壤】 관서체육회(關西體育會) 주최 본사평양지국후원의 제오회 관서체육회 체육대회는 십월오일 긔림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방금준비에 분망중인바 이대회는 ▲男子中等校陸上競技▲一般男子陸上競技▲男女中等校 籠球 排球▲一般男女個人庭球▲男子一般野球 등을 종합한 대회로서 전긔각종목의 금년도 우승권을 결케되는것으로 비상한인긔를 집중하고잇다 대회의 경기종목 심판규정 신청급 추첨규정은 다음과갓다

◇競技種目
一、男女中等學校 籠球 排球 男女個人庭球 男子中等學校陸上競技 一般陸上競技
一、排球는 每校一팀 十五人以內
一、籠는 每校一팀 十人以內
一、個人庭球는 每組二人
一、陸上競技種目
▲츄랙部…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千五百米 五千米 四百米릴레ー 八百米릴레ー
▲필드部…走巾跳 走高跳 三段跳 投圓盤 投砲丸 投槍
但 選手一人에 三種目以內로限함

◇審査規定
一、審判은 昭和十年度 大阪朝日運動年鑑에準함
一、競技順序는 審判部에서 決定함
一、競技의 相對는 抽籤으로定함 抽籤結果 相對便이 無한 때는 勝者로하고 그効果는 當日에 限함

◇申請及 抽籤規定
一、申請期日 十月三日正午까지 要到着
一、申請場所 平壤府巡查里 朝鮮日報社平壤支局、同府關里太平運動具店
一、抽籤期日 十月四日 午後六時 朝鮮日報社 平壤支局에서 本會任員及 新聞記者立會下에 行함

全間蹴球選手權
東興中學軍獲得

【間島】 전간도축구선수권대회는 지난 십이일에 개최하려하엿든바 폭풍우로 연긔되여 동십륙일오후일시부터 용정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여 준결승전에서 동흥중학군(東興中學軍)과 간도동지구락부(同志俱樂部)군간에 이대이로 승부가업시 연장에연장을 거듭하야 결국추첨으로 승부를결한 결과 동흥군의 승리를 보게되여 마츰내 간도의 양대 중학인 동흥중학군과 은진 중학군(恩眞中學軍)의 결승전이 시작되여 장내는 응원의 고함소리와 백열전을연출하엿든바 이며일로 동흥중학군에게로 승리가도라가고말엇다

隣接郡面을編入
大邱府擴張計畫
擴張範圍는現面積의約倍로
府內務課에서成案

【大邱】 대구부 행정구역의 확장은 다하부윤(多賀府尹)시대에 계획되여 당시 부안을 작성하야 도지방과와 절충을 한바잇섯스나 각종의 사정으로 말미아마 실현하지못하고 그대로매장되여잇든바 근년에와서 부의 발전확장은 현저하여감에 감하야 부당국에서는 린접군면을부에편입하야 행정구역확장에 적극적 노력을할방침을 세우고과반내무과에서 원안을 작성하고잇는바 요지음 그안이 완성되엿스므로 목하 이안을에의연구중이라한다 의안의내용은 추측한바 대개 아래와가튼데 부에서는 외안의 연구를 거듭하야 선설한성안을 어든후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제출하리라한다

一、擴張區域 達城郡 壽城面大明洞 新池洞 達西面 新洞 內唐洞 飛山洞의各一部 砧山洞全部
一、擴張面積 七千七百三十餘坪
一、擴張時의人口增加數 三萬三千餘人

各層을網羅한
仁川體育會
創立準備進捗

【仁川】 조선의스포ー츠계는 세계무대에 긔록을 남기지 오래임을따라 세계적 화형선수가 속출하는현상이다 이에인천에서도 조선사람으로서 특장을가진운동조목을 위주하야 발긔인제씨의 열성으로 과반각단체대표자간담회까지 개최하엿든바 체육회조직에 대하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야 준비위원칠명까지 선거하고 이래준비에 노력하고잇든중 만반준비가 정비되여창립총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체육계에특지가 잇는제위는 자진가담하야 주기를바란다하며 당분간은 새로히 건축되는 인천부도관에다가 사무소를 두게되엿스나 장래에는 체육관을 건축할 예정이라는데 특히 금번최초사업으로 인천팔학원(八學院)련합대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데 각별한 후원자가 잇기를 갈망하는중이라한다

元山刑務所脫走犯
高同得에四年求刑
言渡는來二十五日

【元山】 지난달 이십륙일오후다섯시경에 원산형무소 벽돌공장에서 로역중이던 고동득(高同得)(二〇)은 간시하든 간수의눈을피하야 탈주하지 마끔만에 정평군신상에서 체포되여 원산서원의 엄중한 취조를 맛친후 원산검사국에 송치하얏다 함은 긔보한바거니와 그동안 검사의 취조를 맛치고 원산지청공판에 회부되엿든바 지난 이십일일에 동지청에서 공판이 개정되엿는데 림회검사로부터 징역사년의 구형이 잇슨후 폐정하얏다는바 언도는 래이십오일이라고한다

그女子의一生 (215)

春園 作 回光瀨 夕影 畫

「다들 먹기는 어떠케 먹어요?」

「먹다니?」

「아니 돈이 어듸서들 나느냐 말야요」

「응 동량해다가 먹지。다른중들은 다 제 재산이란것을 가지지만 여긔 잇는 학인들은 다 동량들 해먹어。인제 한 이십일 지나면 칠월 백중아니냐。백중이 되면 해제가 되어서 모두 겨울에 먹을것 동량하려가지。」

「오빠도 동량 다니섯수?」

「그럼。」

「아머니。오빠가 동량을 다니섯서?」

「그럼。너도 중되면 동량 나가야지。」

「땡땡이 중만 동량 다니면서?」

「동량다니는것도 공부다。공덕이구。」

「동량이 무슨 공부요?」

「인욕공부。참는 공부。」

「동량가면 잘들 주우?」

「잘들 안 주니까 공부가 되지。아모리 사람들이 푸대접을하고 욕을 하고 놀려먹더라도 성도 안 내고 오직 자비심으로 참는 공부가 된단말이다。참더라도 억지로 참는것이아니라、유화하게、부드럽게 참아서 마음이 흔들리지아니한단말야。」

「참는 공부」

하고 금봉은 땅을 들여다본다。금봉은 제가 고깔을 쓰고 바랑을 지고 염주를 목에 걸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중 동령 왓읍니다」

할것을 생각해본다。그리고 한숨을 쉬다。

「그리고 공부라는것은 그저 안젓는게요?」

하고 금봉은 또 인현에게 뭇는다。

「그렁 네가 돈도암에서 본것과 마찬가지지。」

「그러케 안젓드라면 도통이 되우?」

「그런다고 그러지。」

「도통이 되면 어떠구?」

「그게야 도통을 해보아야 알지。서울 가지안코야 서울이 어떠케 생겻는지 알수잇나?」

「도통이 되면 마음이 편안한가?」

「그러타고 그러지。」

「그래 여긔는 멧분이 게시우?」

「열아믄 되지。더 될 때도 잇고。」

「다들 왜 중이 되엇나요?」

「가지가색이지。화나는 일이 잇서서 중 된 사람도 잇고、중이 되고십허서 된 사람도 잇고、정말이생의 진리를 알아보랴고 된 사람도 잇고、한번해보노라고 된 사람도 잇고、나가리 세상을 비관해서 된 사람도 잇고。그런데 여긔 잇는 사람들중에는 대학출신도 세인가 잇고 예수 밋던 사람도 잇고、또 몸에 병이 잇서서 병곤치러 와다가 중 된 사람도 잇고、부잣집 자식도 잇고―」

「아、참。오빠 친구 그이는 어떠케 되섯수?」

「황?」

「응 그이。」

「저 집에서 차즈러와서 붓들려 갓지。」

「그 때에 오빠가 달아나섯다고 해서 은봉이 황씨 시집일 갓더라우。갓더니 옵빠가 자긔네 아들을 후려데불고 갓다고 야단법석이 낫더래。사방으로 사람을 보내구。」

인현은、

「너 여긔 안저 잇거라。몸이 먹고 십거던 저긔서큰 바위밋헤 우물이 잇스니가 떠먹어。난 저긔길다기한는데가 보아야겟서。일이 끗나기전에는 아모도 중간에는 빠지지못하는 법이니까 아직 두어 기간은 기다려서야 우리 시님이 오실게다。거긔잇서」

하고 가버리고 만다。

금봉은 혼자 마루끗헤 걸터안저서 수업는 봉들과 거기를 감도는 구름들을 바라보앗다。

금봉은 문득 자긔 세간들과 삼칭장 이칭장속에 채곡채곡지어너은 옷들을 생각하엿다。그것이 아깝고 그리웟다。거긔는 조선옷도 잇고 양복도 잇섯다。그옷중에 어떤것에는 여러가지 쓰고 단 긔억들이 부러잇섯다。그옷과 함께 두고 온 세상이 아깝기도 하엿다。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대화를 들은것도 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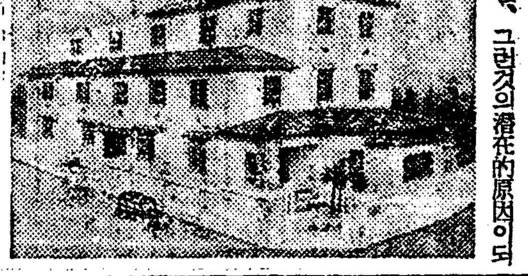
이런 뒤숭숭한 생각은 집어치이자 하고 금봉은 인현이가 가르처 준 바위 미테 물을 먹으러

男子의資格―
生○器發育
機能健全을圖謀
自宅에서安全簡便
廉價인物理療法

近者에花嫁學校
라것이東京에生겨서 妙齡의令孃들은 各己未來의男便을조흔꿈꾸고서잇는바、이미結婚한젊은新妻彼女들은、마음속에그러한新家庭의幸福에滿足을 求하고잇는것은더말할것도업다、새로히結婚한夫君이性的缺陷者로서、夫君될資格의缺如者라면 新婚彼女는失望、煩悶、愛嚼의深淵에빠지게된다。

世上風波의眞相
을보면、그런것의潛在的原因이되는것이만코、許多한財産이 잇서도風波가끈지안코며、家庭不和로서 男君이家出하든지、男子의名譽的關係로서、世上의輕蔑을바드며 信用을일코出世의 途上에서 失敗하게되는일이적지안타、全勝的으로보다고하며男子가

自己절노招來한
것임으로서、弱小生○器를 具體하고



東京新療法研究所外景

的으로 發育식혀서 機能을 健全케하는것은 이제로부터 社會의第一線에서 活躍하려고하는靑年에게는 第一步的急務인바日本發明界의 名譽로서 海外에까지好評이놉흔 日獨佛專賣特許ホリック眞空水治器는 極히巧妙한理學的 構造로서 된바 形은 小하고輕便하며 效力이特殊하며、自己로 簡便秘密히 本器를 性器에直接使用하야

物理療法을行하면
곳眞空吸引作用이生거서生○器에血液이流集하며、筋肉組織을擴張하며、發育力을促進하야、그結果로서、漸次로本器의메ー틀에나타나서、同時에理學的으로發現하는『예손氏作用』을發生하며

性神經衰弱을復活
식혀不自然行爲、過房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彎曲等이回復되면機能도健全케되며이것을契機로서 男子의特徵인元氣、勇氣、決斷心도이려나며 腦力記憶力도增進될것으로서 實驗界에잇서서가장好評을博得하고잇다。性缺陷이 잇는분은

于先後悔치안토록
青年準備時代에 하로速히治療에着手하야 男子의資格을 完全하게發育식혀 幸福成功의運命을開拓하라 生理的發育이旺盛할時代에療法實行의찬스를일치맙나。

日獨佛專賣特許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推獎證明
博覽會名譽金牌受領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二五錢 植民地五五錢
◎代金引換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說明書添付= 匿名으로密送

包莖― 재치안코、自다가 秘密히成形함
登錄商標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 內地一五錢 植民地四二錢

◇無料進呈
(非賣品) 圖入說明書
造化의秘密、男子의生理的新知識을開放的으로 滿載하야 本器의內容도詳細說明과 特히 性器弱少男子의 深刻한悲哀의事實、本器實驗者의感謝告白文도多數揭載하얏스니 꼭一讀하시라、秘密은安心하고藥書로照會하시라 全部無料로匿名密送함

○僞物 効果不完全한가짜가잇스니꼭ホリック의商標로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求하시라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合資會社 東京 新療法研究所
電話芝 ③一三三一番 振替東京 七七三一九番

打撲에 捻挫에
アンチトルチン (안치도루친)

멍들고 삐끗한데에對하야 顯著한奏効를한다고讚嘆하고잇다。

輕度의것은 一回의貼用으로되고 甚한것은數回貼用交換으로恢復하게하는대實用합니다。

100瓦 ¥.80 500瓦 ¥3.00
說明書御申越次第送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三 SANKYO 共

ORYZANIN. 脚氣에 オリザニン
오리자닌

脚氣에오리자닌을쓰면 빨이 治療되는것은 多數實驗醫家의 報告에 비추워서도 疑心할餘地가업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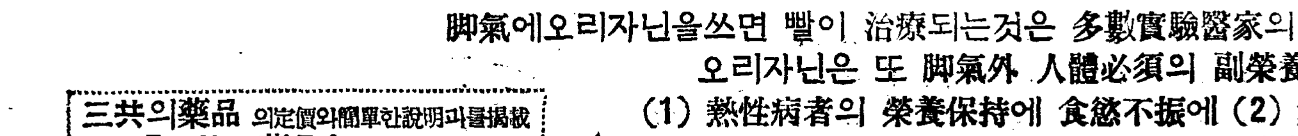
오리자닌은 또 脚氣外 人體必須의 副榮養素로써 여러가지境遇에 賞用되고잇다。

(1) 熱性病者의 榮養保持에 食慾不振에 (2) 姙婦便秘 姙娠嘔吐에 姙產婦脚氣에 (3) 泌乳不全에 (4) 虛弱兒의 健康並發育增進에 (5) 스포ー츠맨의 心臟力保持에 疲勞恢復에……

液。エキス。錠。末。注射液各種 (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三共의藥品 의定價와簡單한說明과를揭載한冊子『三共の藥品』잇습 必要한분은朝鮮日報名으로 記入하야 申込하시면 贈呈함

定價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絶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産―大販―市價의半額

青年鍛鍊總革靴◇
無比堅牢 耐久力二個年以上
上等黑總皮製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底―總革學生靴
鬼三枚短靴 一足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三圓九十錢

流行尖端 總革フレンチ型
フレンチ型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革靴大爆發的大景品付
靴一足에定價一圓의萬年筆一本式進呈
(最新インキ吸入式、一年以上使用할수잇는萬年筆)

高級紳士禮服用 總革靴
深型靴 五圓五十錢
短靴 四圓五十錢

中學生專用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化學의精華人巧의妙) 最新發明
一足 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三二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眞正한 高級眼科藥

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

로-도안약

井上獨逸博士處方
中尾藥學博士指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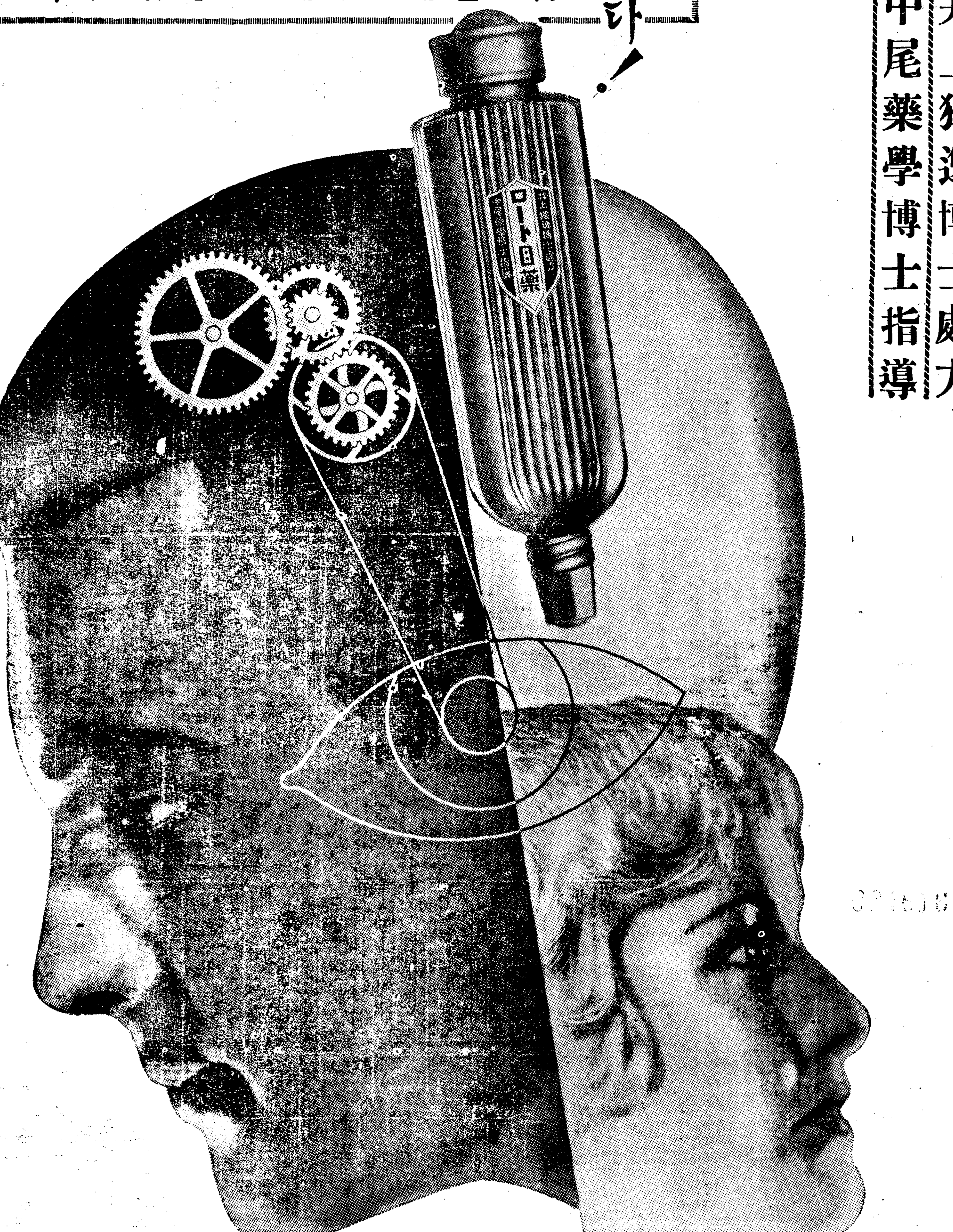
ROHTO

眼은腦를支配한다！

度數가맛지안는 眼鏡을 쓴다거나、或은長時間過度하게視力을쓸때、頭痛과、倦怠를느끼는것은 누구나늘 經驗하는바이다。이것은 卽눈이直接腦의 作用에 關係하고 腦를 支配하는것임을 分明히證明하는바이다。

이러한 狀態로 되는것을 醫學上으로는 眼精疲勞라하야 近代人特히細文字를읽 고쓰고하는 學生과 事務家、或은長時間裁縫에從事하거나、職業的으로 微細한 物體를보는 사람들에게 흔히잇는 近代的疾患의 하나이다。

眼精疲勞가된 境遇에는、처음에눈이疲勞하기쉽고、物體가 朦朧하게보이고 頭痛이나고 頭重이되는程度이지마는、이것이 더지나면 睡眠이不好하고 判斷力과記憶力의 減退를 보게된다。이러한 症狀을 自覺한 境遇에는 決코 放任하지말고、그原因이될일을 避하는 同時에、로도-안약과 가튼 健眼에効果잇는、適當한 眼藥을每日數回點眼하야 눈에 休養을주고 눈을 愛護하는것이 緊要하다。



結膜炎

結膜炎이라하는것은 結膜、卽眼瞼의 속과 眼球를덥고잇는 粘膜에일어나는 炎症으로 世俗에 돌림눈、눈곱끼는눈、부은눈、붉은눈이란것이 이것이다。原因은K・W氏菌等의 黴菌、塵埃、强烈한 光線等이며、그症狀은 輕할쩍에는 結膜의 充血眼脂의 分泌、眼瞼의 腫脹等이지마는 그것이 重해지면、充血과 眼脂이甚하고 或쑥쑥쑤시며 또밝은 光線에 對하여서는 눈이부서서 눈뜰수가 업게된다。이結膜炎의 療法으로는 每朝洗面할때에 淸水로 눈을씻어 眼脂等의不潔한것을흠처낸뒤에 로-도안약을 一日、二三回點眼하는것이 有効하다。로-도안약은 그殺菌作用으로 病原菌을 殺滅하고、消炎作用으로 炎症을 消散하며、收斂作用鎭痛作用으로 充血과 腫脹을 낫게하고 痛症을 그치게하는 機能이 綜合的으로有効한 作用을 하는것이다。

角膜炎

角膜炎은 世俗에 삼눈、찔린눈、흐린눈、진물른눈이라하는것들인데、眼球에 검은자위에 생기는眼疾이다。原因은 草葉이나 나무끗에 찔린境遇、或은 結膜이 進行續發하는 境遇가만코 검은자위가 흐려지고 흰삼이 서서 눈이 침침하고、或은 눈물이나서 눈갓이 진물르는수가잇다。療法은 大體 結膜炎의 項에서 말한것과 가티하면 고만이나、로-도안약의 優秀한 消炎作用은 角膜의 炎症에 對하야 極히 有効하게 作用하야 그 收斂作用으로더부러 눈흐린것을 업새고 진물른것을 고치며、炎症이 減退됨을따라 눈물은 적어지고 鎭痛作用으로 疼痛이抑壓되는것이다。

適應症

結膜炎、角膜炎、도라홈
學校眼炎、眼瞼緣炎、疲勞眼
結膜充血、角膜翳、麥粒腫等

俗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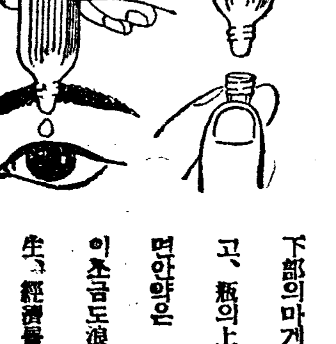
上氣된눈、돌림눈、진무른눈、눈곱낀눈、붉은눈、흐린눈、삼눈、저린눈、어둔눈、雪盲、찔린눈、부은눈、뻑뻑한눈

어린애의 眼疾에 對하야

二、三歲以上 七、八歲때까지의 幼兒들에게서 흔히보는것이어니와 아침에 일어날쩍에 눈곱으로 눈이 딱들어붓터서 甚한것은 눈을 뜨지못하는수도잇고또간작이 눈의흰자위가 淡紅色으로 充血하는 境遇도잇다 이것은 흔히는 急性結膜炎이 되는것이다。애기네들의 點眼에는 小兒專用으로 特히 處方調製한『小兒用로-도안약』이 잇서서 쓰리지안코아푸지안코 安心하고 使用할수 잇다。

新案特許

로-도式 自働點眼容器



使用法說明

下部의마개(나사뚜께)를베끼고、甁의上部고무를살작누르면안약은 一滴식나온다、藥이조금도浪費되지안코便利衛生、經濟를兼한最新式의點眼容器이다。

生産合理化
藥價低廉

小甁	二十錢
大甁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藥店에서販賣함

本舖 山田安民藥房
營業所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工場 大阪市東成區猪飼野町

穀物大會縱橫觀

目標는어듸잇나 ②

申泰翊

그러서 朝鮮穀物商 大會는 一年에 한번씩 모혀서 同業者間에 親睦을 圖하는 同時에 米穀商의 利害에關한討議 또는當局에對한 要望等을 하여왓다 이와가티 米穀商들로 되는모임인만큼 自己의利益을 擁護하는곳에 目標를 두는것은 當然한理이며 딸허서 그 大會의討議事項과 當局에對한 要望은 거의全部가 純然히 어떠케하면 米穀을 사드리고 파는데잇서 自己便에 좀더 有利하도록 展開케할가 함에 그치게되는것도 亦是無理한 일이 케 되어야만 할일이 아니라 든가 생각한다 그럼으로 昨 鮮穀商組合 聯合會가 十八年間 또는 그大會가 十八回를 거듭한 긴歷史를 가지고왓스나 그모임은 어느때든지거의千篇一律로 米穀商中心의討議事項을 되푸리 하엿슬뿐이며 이곳에서 한걸음을 나아가 米穀에關한問題된것은 오즉 이것을 業으로 삼는 그들의利害를 討論하는程度에끄칠것이 아니라 朝鮮經濟의原動力 더구나 朝鮮人口의八割이 農民이라는點에서 좀 큰 眼目을 米穀問題에對하야 討議할 誠意가 못되엿섯든것이 事實이다

×

이點에잇서 朝鮮穀物大會라는것은 朝鮮米에 對한全面的인目標로 안잇는것이 밝히나타나고 딸허서 이에對한一般의非難이 相當하엿다 그래서 이가튼 非難의소리가 놉흔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를 昨年十月 群山에서 解散하고朝鮮穀物協會聯合會란 새로운團體를 創立하게되엇다 그런데 多年의歷史를 가진 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를 協會聯合會로 發展을 고치게을 單純히 以上과 가튼 非難만으로 된것이나고 하면 그런것은 아니다 이에 對하야 여러가지의 事情이 잇스나 이것을 大體로말해 兩面으로 볼수잇는 事情을듬다면 다음과 가튼것이다

×

▲먼저 이聯合會가名稱의 變更에對하야 聯合會側에서 理由로 삼는點 即 近年에 잇서 米穀統制 問題가 떠들어오는 同時에 그論議의 中心으로 되야 朝鮮米를 壓迫하라는 差別的 傾向이 漸次深刻性을 띄이는 터이며 또朝鮮內 穀物界 情勢도 날로써 變化가 생기고잇다 이와가튼 모든 事情은 結局 朝鮮穀物界의 統制와 結束의 必要를 늣기게 하엿다 그래서 四年前 以來 大同團結의 目標를에 統一되여잇든 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를 中心으로 協議研究가 되기 비롯하엿다 그뒤 關係官廳과 地方團體에 折衝을 한結果 漸次 그機運이 濃厚케되야 畢竟에는 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를 中心으로 이곳에다가 地方檢查所로 設立된 各地穀物協會를 한데 뭉처가지고서 所謂 全朝鮮穀物關係者의 集團을 맨든것이라고 한다

×

以上과가튼 理由알에 昨年四月十日 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臨時總會에서 그것을 決議한뒤 다시 各地方協會의 贊成으로 昨年七月十四日 京城에서 穀商組合聯合會的事會와各地方協會代表가 모혀서 農林局과 米穀檢查所當局者의 立會알에 協議한結果朝鮮에서穀物의受檢者와 그輸移出을 하는사람으로서 組織되는各地穀物檢查支所別의 各穀物協會를會員으로 組織키로 決定하고 籌備하야 昨年十八日 京城에서 各協會選出의 第一回幹事會를 열고 會則其他事項을決定하엿다 그뒤 昨年十月 群山에서 大會를 열어가지고 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를 解散하고 곳朝鮮穀物協會聯合會의 第一回大會를 비롯오 열엇고 그第二回로 이번釜山大會에서연것이다

×

이것은 表面的理由에 不過하고 그 裏面的事情과는 이距離가 相當히 멀다

―(續)―

伊「에」開戰不可避

日本財界波紋打診

伊「에」開戰은 不可避의形勢에까지 進展되엇고 英、伊關係도 一觸卽發의 危機線上을 彷徨하고잇는터로 全世界의耳目은 이時局動搖에 集中되고 株式商品市勢도 戰時氣分으로 躍進인터인데 이戰爭이 東阿의一局에止하느냐? 或은 이것을 契機로 第二次世界大戰으로 擴大하느냐는 勿論 豫想을 不許하는터이지만 如斯한 內外財界의波動이 日本經濟界에 果然 如何한影響을與할가? 主要部門에就하야 그影響을 打診하면 大體如左할것이다。

動搖는 一時的 大局、現勢不變

▲爲替＝「資金은 不安을 嫌忌한다」라는原則으로 不安의 絶頂인 戰爭을 실허하야 歐洲資金이 작구 米國으로 流出되어 即 米英、크로스는 急落을 繼續할것으로 보는側이 만흐나 爲替銀行側에서는 一般豫想에 反하야 影響이 적을것으로 보고잇는모양이다。一般으로는 戰爭必至라할지라도 極히 局部的에 止할것이라는 觀測이 만코 戰爭勃發의報로 一時的으로 多少動搖가잇드래도米英크로스는 大勢的으로는現在의 軟勢를 取할것으로보이어 日本의 對外爲替에도 突發的變動은 거의 豫測되지안는 모양이라한다。

機械工業伴奏 戰時景氣謳歌

▲重工業＝鋼鉛錫等 아연의 軍需工業品中 가장直接的影響을 受하는關係上 이미 數個月前부터 鋼及鉛은 伊太利의 買付로 昂騰되엇스나 世界大戰時와가티 倍額以上의 暴騰을 告하라면 戰爭이 相當히 擴大될것을 條件으로 하여야할것으로 實現의 可能性이 적다 鋼과 알미늄 은 아즉 伊「에」紛爭의 影響이 價格上에 나타나지안햇스나 海外에 依存하는바가 만흔 日本으로서는 伊「에」戰爭으로、騰귀될것이 만타。昨年度에 入하야 多少나마 輸出過剩을 示한 鐵鋼業은 伊「에」開戰으로도 急히 活氣를 띄게 될것이며 工業全般의 活動源泉力인 石炭은 過去三年來의 好況에 拍車를 加케될것이오 從하야 重工業全體는 機械工業을 伴奏로 戰時景氣를 謳歌할 모양이다。

輸出好轉無疑 人絹特히好望

▲綿絲、人絹＝戰爭으로 內外實需를 度外視코 暴騰을 演出하얏든 綿絲、人絹市場도 戰端開始가되면 新實需展開如何에 눈을 돌릴것인데 綿製品人絹布 輸出의 好轉을 볼것은 明瞭할것이다。그러나 綿布에 對하야서는 一個年 三萬俵의 相布를 消化하는「에디오피아」에의 輸出이 相當히 打擊을 蒙할을비롯하야 埃及 발칸方面에의輸出도 危懼되는一方 東洋市場에의 日本品의 地位는 相當히 有利히 轉回될것이 틀림업고 戰爭이 單純히 伊「에」에 局限되드래도 英國綿製品에 對하야 優越的地步를 確立할것으로 보인다。人絹織物에잇서는 伊太利가 印度를 비롯하야 東洋各市場에 對하야 有力한 地盤을 가지고잇는데 이것은 日本品이 대신될것으로 보아도 조코 先般來 가장 問題視되든 埃及의 棉花도 英國이 戰爭渦中에든다면 輸入이 杜絶될것으로볼수밧게업다。

▲小麥騰勢拍車＝主要小麥生産國의 減收豫想인데다가 過般 伊太利를 비롯하야 歐洲方面의 需要가 殺到되매문에 各市場이 一齊히 暴騰되고 日本도 連日騰騰되어二三十日에는 百斤九圓으로 昭和元年以來의高價를 示하얏는데 開戰되면 外麥先益騰勢로 日本小麥市場도 强調가繼續될모양 갓다。

戰爭規模期間의如何로左右

▲化學工業＝戰爭이 永續되면 歐洲各國의 化學工業製品은 當然 軍需工場으로 變할것이만큼 化學工業製品의 生産이 減退케되고 必然的으로 日本化學工業製品의 市價昂騰을 招할터인데 如斯한 現象이 顯現할 與否는戰爭規模와 期間如何로決定될것이다。

▲海運界活舞台＝戰爭景氣는 船景氣라도 하는데 開戰되면 異常한 興奮을 呈하야 海上輸送으로는 係爭中心인 紅海、地中海가 危險케되면「케―푸다운」經由、歐洲航路가 大戰以來 처음으로 再現되어 日本船의 跳躍이 大戰當時以上으로 活潑케될모양이다。

▲染料活躍期待＝染料工業은 軍需工業과 密接不離의 立場에잇는 關係上 東阿時局이 今日以上으로 緊張하면歐洲로부터의 輸入이 困難할것임으로 이것을 豫想한 注文이相當多額이 殺到코잇다

▲琺瑯鐵器景氣＝【大阪電話聯合】琺瑯鐵器生産業者는 最近 數個月來 原料高、製品低에다가 朝鮮同業者의 海外進出로 苦境에 陷하고 그打開策으로서 輸出振興에 努力中 이든바 統制第一月後의 輸出向生産高 一三三、六三八梱에對하야 輸出狀況은 昌盛하야 前月의 後續貨도 一掃되고 輸出高 五千梱突破로서 生産高 輸出高共히 統制實施以來의 新記錄이엇다 이것은 伊「에」開戰의 價格騰貴와 船貨昂騰을 考慮한 投機에依한 大口注文이 激增되어 米國向輸出이 急激히 增加된때문으로 十月以降의 本格的需要期를앞두고 一層輸出增이期待된다한다

局地戰엔微響 全歐戰엔爆發

▲株式＝伊「에」二個國의 局地戰이면 直接影響잇는 船株、軍需關係株가 一段買進되는 程度이겟스나 全歐洲動亂으로되면 問題업시 樂觀人氣가 勃發하야 東新 二百圓臺期待는 勿論 諸株一齊熱狂市勢도 期待되는모양이다

羅津港을 開港地로

北朝鮮의 雄港羅津은 今年中에 開港地로指定되기로決定하고 目下 遞信、內務、財務、警務의關係四局間에 合議中인데 그準備로 新貝總督府警務課長은 二十四日羅津에 出張하야 三十日歸任豫定이다

十年棉收穫豫想 一億九千八百萬斤

比前年實收四千三百餘萬斤增 昭和元年以來大豊作

農林局發表＝今年의 棉作狀況은 播種當時의 降雨量이 極히 적고 發芽가不均하얏고 局部的으로 旱害、病蟲害가發生하얏스며 또 生育初期의 氣溫이 例年에比하야 稍低하야 幾分 生育을抑制하얏스나 生育中期以後의 天候가 자못 順調로서 漸次 生育이 恢復되어 開花、結實共히 良好하얏다。

九月十日 現在의 反當收穫豫想은 陸地棉一〇四斤、在來棉七二斤、總平均九五斤으로서 前年反當收量 陸地棉九一斤、在來棉五七斤 總平均八〇斤에 比하야 모다 增收를 示하고 또 作付反別의增加와 相俟하야 收穫豫想高는 陸地棉 一億五千三百五十四萬五千七百九斤 在來棉 四千五百卅一萬七千卅九斤、計 一億九千八百八十六萬二千七百四十八斤으로 이것을 前年의實收高에比하면 陸地棉 三千二百七十七萬一千八百二十斤(二割七分一厘)의增이오 在來棉은 一千、百六萬六千四百七十一斤(三割二分三厘)의增으로서 計 四千三百八十三萬八千二百九十一斤(二割八分三厘)의 增收가 豫想되다 註＝昨年實收高는 今年收穫豫想報告와 比較對照하기爲하야 咸南의在來棉을除함

一、棉作收穫高累年表

昭和元年	一六〇、〇八四、二七二斤
同 二年	一五三、〇三一、二一四
同 三年	一七〇、八六七、一五九
同 四年	一五六、三六八、一五〇
同 五年	一六八、七七〇、六三〇
同 六年	一二八、九三一、三六六
同 七年	一四四、三六七、七七七
同 八年	一五九、四一五、五五四
同 九年	一五五、〇三六、〇五四
同 十年	一九八、八六二、七四八 (豫想)

備考＝昭和十年의豫想高에는咸南의在來棉을除함。(各道別豫想高는朝刊産業面에)

紡績聯合加盟各社 遂一千萬錘突破

超飛躍의日本紡績界

【大阪電話聯合】世界各國市場의 關稅引上 割當制實施로 日本綿製品의 輸入阻止策을 不拘코 高率操業을 包藏하면서 猛進一途인 日本紡績은 遂 待望의 一千萬錘를 突破하야 日本綿業界에 光輝잇는 一『에폭』을 劃하기에 至하얏다 即 九月二十一日現在의 紡績聯合會加盟各社의 据付錘數는 一〇、〇一七、五〇八錘로 九月一日에 比하야僅히 二十日間에九一、九四〇錘의 驚異的增加를 示하얏다 從來月平均 增錘 七萬錘에比하야 異常한增錘를 示하얏는데 右는 目下 聯合會가 季節的增錘促進策을取하야 各社共히 增設工場이 만흔때문이라한다

亞米利加로 金現送激增

歐洲各國으로부터

【電通紐育廿一日發】伊「에」紛爭을 圍繞한 歐洲政局의惡化에伴하야 歐洲各國으로부터 米國에 金現送이 激增되는中인데 聯邦準備銀行 二十一日發表에 依하면 現在 英、佛二國의 米國向金現送의 契約高는 如左하다。

(單位千弗)

英國 九、五三九
佛蘭西 九、八四六

그리고 加奈陀經由의 金現送도 相當하야 同國으로부터 米國向 金現送契約高는 二、八二九、〇〇〇弗에 達하얏다한다

英에서米로 金塊直送

【電通倫敦二十一日發】伊「에」開戰念慮로 二十一日『사산푸톤』港으로부터 汽船『紐育』號로 金塊百五十萬磅이 紐育에 向하야 直送되엇고 今後 十日間에 更히七百萬磅의 金塊가 紐育에積送되리라한다

△採塊高＝專賣局 九月十日現在 採塊高는 合計二億四千六百六十七萬三千瓩로 豫想高에對한 比率은 十三割三分七厘의 好成績이엇다

今日財界 (廿三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合三等米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一斤價 在來	[illegible]
◆市中靑邊價 一叺價	[illegible]

◆株 (單位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 現	[illegible]

政局不安濃厚

機關說問題로

機關說問題는 美濃部博士의 自發的聲明取消로 一段落되든하얏스나 軍部의 態度가 至極强硬하여 一木樞相、金森法制局長官의 進退問題等으로 政府自體도 極相과함께 殉死치안으면 안될 狀態에잇서 政治季節接近과 共히 內閣運命을 左右하리라하니 이政局不安이 重視되엇다

警戒圈內市勢

伊「에」開戰時期는 株式市場의全神經을 集中코잇는데 戰端이 開始되지안음으로 熱狂든人氣가 冷却된데다가 機關說問題로 政府가 危機에 直面하야一層 買氣를 減殺코잇다。伊「에」事態如何 展開는 豫斷不許이나 戰爭不發時의 反落도想像할수잇서서 市場人氣는 警戒圈에 入하야섯다

事前投機危險 『시로도』靜觀可

伊「에」兩國紛爭이 戰火相交를 報하야 奔騰되거든 追從買하야 可하고 더구나 歐洲方面으로 擴大된다면 熱을 買하고 算盤을 떠나도 조켓스나 紛爭이 平和的解結이되어 反落되거든 그때 買하야도 安心일것이다 不戰을 買케될것은 當然한일로 取引所株는 다시人氣圈外에 放置될것이며 事業株로 再檢討가 始작될것이다 그런즉 如斯한때에 事前에 投機的 賣買를하는『소―바』論의 本領이라할지라도『시로도』로서는 손대일것이 아니며 靜觀이 第一 完全하라라는 警戒論이잇다

商況 (廿三日)

株式 雙方氣迷 浮動

前場浮動 前週末迷程인引伊의 和協案正式拒否나 다시 伊態度軟化氣味가잇는데다가 米棉低、絲低等으로 買氣不昂하야 場面은 依然 去就未定의 浮動에始終하얏스니 即 再昨引에 比하야 東新五十錢低인 百五十七圓四十錢 日產十錢低인 八十三圓丁 拓新十一圓八十錢에 各大引되고 朝新三十一圓丁으로 三十圓九十錢 北海炭鑛新三十四圓六十錢 安取七圓三十錢 淺野新二十二圓六十錢이잇섯다

▲朝新 三一〇〇(寄) [illegible]
▲大新 [illegible](寄) [illegible]
▲東新 [illegible](寄) [illegible](引)
▲日產 [illegible](寄) [illegible](引)

後場氣迷 後場은 東新百五十七圓五十錢、日產 八十三圓十錢、大新 九十六圓六十錢、朝取六十六圓五十錢에 保合寄後 依然氣迷裡에 凡調大引

和協案拒否나 伊側代案提出

伊太利는 聯盟의 和協案을 正式으로 拒否하얏는데 開戰되엇

米期 廿九圓臺 暴騰

前場反撥 再昨後場 阪地卅圓九十六錢止와共히 二十八圓四十三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一休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伴 卅一圓十四錢인 十八丁高를 擲하고 二十八圓八十九錢인、四十六丁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二節〇五錢까지 下押하엿다가 結局 二十錢의 最高로 止場하얏음에伴하야 二十九圓〇二錢의最高로 場을止하엿다

後場續高 後場은 二十九圓二十四錢에 二十三丁高로 始場後 二節二十八錢에 올르고 五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更히動機待人氣로 市中氣乘薄이나마 市勢는小高이엇다

甲 五分利 一〇四〇五
佛貨伊太利 一八六三五

實物前場取引

賣買高百六十枚

▲鮮濟開拓 [illegible] ▲京南鐵道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朝日醱酵 [illegible] ▲朝鮮銀行 [illegible]

市場小感

株 聯盟의 和協案을 伊太利政府에서 正式으로 拒否하얏스나 今前場은開戰不可避로 다시 發狂的暴騰이 될줄알앗더니 ▲웬걸 依然 逆行性의 浮動만 했지만 和協案을 拒絶은 햇지만 開戰치를 안코 머무적거리는伊太利의 態度가 우수웁다 ▲消息通은 和協案의 代案을伊에서 提出할듯하다고도 傳하니 싸오지 안을작정인가? ▲나 싸오드래도 伊「에」의 局地戰이라면 이미 뛰어논것으로 그만이겟지…라는 觀測도不無

▲第二次世界大戰까지 미리 짐작코 飛躍한 株界이라 여간해서는 그以上의 爆發이업슬것이라는 秋論이 昨今의迷徨을보고 優勢해가는 모양 ▲歐洲의風雲이 將奈何? 東新等의市勢는 果如何? ▲아즉 疑問符만 찻처두자

米 今朝 南大東島東方에進出하고잇는 颱風은 그中心勢力이 七百十粍에達한 猛威를가지고잇다 ▲그 進路는 北東으로 進行하야 明朝 關東冲을通過하리라고 仁川觀測所는 發表▲明日은 二十四日 即 黃熟期에入하는때인데 昨年九月二十一日에 關西地方을 襲擊하든 世界的記錄을突破이엇든 颱風被害의 記憶이 다시 무시무시▲昨年度 米作은 五千百八十餘萬石의 大凶作으로 今日의需給不安이 極度에 達한데다가 또 颱風被害가 잇다하면 昨今五千九百八十萬石의 豫想說은 一場春夢化할모양 ▲그런데 日本內地의 天候는 九月에入하면서 颱風、降雨、冷氣等모든 災厄이 만어든만큼今同의颱風이 無事通過한다할지라도 平年作을 期待키難할것은 事實▲又復凶作을 豫想하는때는 明年度의 米價는 天荒的의 高價를 示할모양▲何如間『오시메』에『오시메』買方針으로 勸進하는것이 良策이아닐가한다

颱風又復猛進

關東地方危殆

連日氣溫의 低下와 降雨의繼續으로 日復日 高價를示하여오든 各地市勢는 颱風襲來의 念慮로 又復 爆騰을示하엿다 果然颱風의 動向은 何如할지 今朝仁川觀測所의 發表에 依하면 左記와가트다。

颱風은 一路北東으로 進行하야 今朝 東經百三十二度 北緯二十六度로 南大東島의 東方으로進出하야 七百十粍의猛烈한勢力을 보이고잇다。이때문에 南西諸島는 殆히 暴風雨로 되어잇스며 關東地方冲及 北海道의 冲合等地에는 副低氣壓이잇서 表日本은 一帶에降雨 裏日本은 晴天이오 高氣壓은『오호쓰구』海로부터 滿洲方面에 뻐처서 朝鮮은 秋晴 滿洲는 晴天으로 氣溫은 平年에比하야 日本內地는 二三度의低溫 朝鮮도 東側及湖南은 二三度의低溫이나 其他는 多少高溫이다 警戒中의颱風은 北東으로 進行하야 明朝關東冲을通過하게됨으로 朝鮮은 海峽方面이 危險할뿐으로 其他는큰影響이업시 明日은 各地共히好晴을 繼續하리라고한다

平作? 凶作?

强弱說이區區

昨 休日中에는 九月十五日現在 調査의 第一回收穫豫想五千九百餘萬石이라는 豫想의 豫想說이 某消息通으로부터 傳播되어 一休後의 一落을見하리라는 弱氣說이 多한 一方으로는 東京其他各地의 雨報가잇서서 颱風襲來의念慮로 一夜暴騰하리라는 强氣說도잇서 今朝市勢의如何를 確斷하지못하든바 結局 颱風襲來의念慮로 一段高價를 보기조케 演出하엿다。果然 本年度의 日本內地米作을 平年作으로볼지 又는 凶作으로볼지 아즉 疑問을 要하는바인데 五千九百八十餘萬石의豫想이라하면 平年作에 稍히 不及되는모양이나 그러나 九月에入한以來의 天候不良으로 보아서는凶作을 逃치못할것으로 늣기는바이다 實로明朝 關東冲을通過하는颱風이 마치 어떠한 現象을 招來할지못하나 假令 颱風의被害가 업다할지라도 凶作에 近하지안을가한다

仁川在米增加

【仁川】本月二十一日 現在仁川在廩米는前週에比하야 合格數는 一三、七八九叺의增加인데 在廩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一九六、十五九叺 (民)二三、九八四叺 ▲正租叺入(政)八六、九三二叺 (民)一〇、〇九五叺 俵入(政)一八、五九二俵 (民)一、六七五俵 ▲大豆 四、一七二叺 ▲小豆 一四七叺 ▲大麥(白)一、二三六叺 (操)五一一叺 ▲小麥 一六、三六三叺 ▲粟 三、〇一六俵 ▲荏子 八二叺 ▲黍 一、一三三俵 ▲雜麥 一、〇二五叺 ▲糯白米 一九二叺 (日本內地米) 一九八袋 四、六九六袋 ▲合白 一九八袋 合玄一、二〇五袋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地場止米側、田中貞、東京側 ▲買方地場馬越、神戶側、地場經

各地正米

京城閑況 目前傳下와新米出廻로抑壓되어 取引이極히 閑散인丸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丁

仁川不變 淸算은日本內地天候險惡으로 逐日暴騰狀態이나 新米氣分濃厚와 據下를 目前에 두고 實行이不振인데다가 氣乘薄閑散裡에始終하야 丸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十錢

釜山續騰 彼岸天候、念慮와 期米의 連日昂騰으로 實需側의 買氣가多少顯著하야 朝來取引이 七六七叺이잇고 氣配休日前보다 更히 二十錢反撥인 角ヲ三等三十二圓六十錢 四等三十二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八十八錢

群山不味 期米는緩漫强調이나 雙方躊躇로 取引이不捗이오 十錢低唱이오 新米는逐日取引이되어 今朝도 少擔이나마 [illegible] 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十四圓五十錢

大邱保合 價位觀으로 採算上高價買進치안코 期米蹣跚이나마 閑散裡에 保合인 角ヲ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二十五錢

木浦釘付 淸算은繼續騰勢 [illegible]

南浦不動 場面新穀待와拂下를目前에두고 全然買氣不進하야 場面沈靜인丸ナ鎭南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錢

不昧 狀態이나 實需側의 買傾觀으로 依然場面休商 同樣이오 明은 不變인丸木多勢 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

金·白金·銀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光化門五二八〇番 振替京城壹五壹五四番 地方注文 代金引換取引賣買料送料先

仁川期米 吉村取引店 福

金融 (廿三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三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三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棉紗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外國棉花 [illegible]
◆鯨油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砂糖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仁川期米 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株式 (廿三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實賣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廿三日)

◆朝取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堂島米穀實賣高 [illegible]